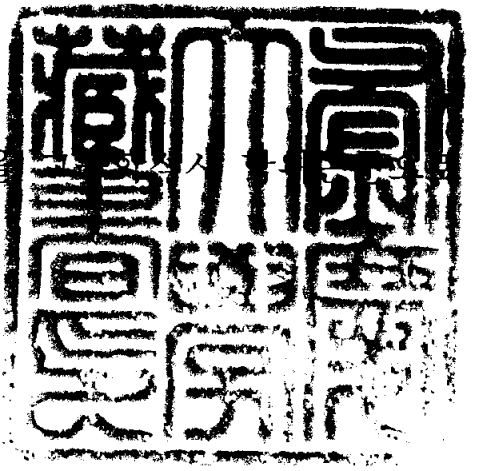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문학 교육

지도교수 강 인 수



이 논문을 [illegible] 제출함

2004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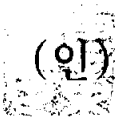
국어교육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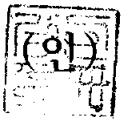
박 숙 옥

박숙옥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일

주 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위 원 문학박사 강 인 수 

□ 목　　차 □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3

Ⅱ. 작가의 삶과 문학 의식 9

1. 작가의 삶 9

2. 작가의 문학 의식 13

Ⅲ. 현실 인식의 양상과 작품의 형상화 16

1. 현실 인식의 양상 16

1)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궁핍화 현상 16

2) 궁핍 현상과 매춘 모티프 24

2. 작품의 형상화 방법 34

1) 바보형 인물의 설정 34

2) 반어적 기법 42

Ⅳ. 지도의 실제 - 「만무방」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문학 교육 50

1. 작품 개관 50

2. 「만무방」 수업 연구 지도안 54

Ⅴ. 결론 64

참고 문헌 67

부 록 71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life in Yujeong Kim's novels and teaching literature

Su-gok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Human beings live in real society, and actual lives become subjects of novels. Yujeong Kim was a novelist who published works in 1930's. He was seriously aware of the national tragedy and poverty that caused by colonialization of his fatherland. He was estimated as an unique writer who sought after his own writing.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what are the understanding patterns of the realities in Yujeong Kim's novels and what are the writer's confrontation to a situation - the rural community of 1930's is impoverished by a capitalistic economic policy. Acts characters in his novels are understandable as results of desires. Aspects of understanding realities in Yujeong Kim's novels are derived from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colonial society. The writer described falling downs of rural communities that were caused by plundering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e poverty dealt with in Yujeong Kim's novels is brought to the fore through dissolutions of families. A motif shown in the process of family dissolutions in his novels is prostitution. Imperial officials drove women to prostitution by plundering rural families. Aspects of prostitution suggest clearly why farmers under the rule of

colonial policy go crash and wonder about.

Figuring techniques used in Yujeong Kim's novels are establishments of foolish characters and ironical usage of language. Foolish characters in his novels tell readers things confronted with them as jokes. If a farmer tell readers leisurely, his rural life could be empty. Coping with this emptiness, a character tell readers ironically. The ironical usage of language is a defense mechanism that can respond to an irrational actuality.

Literature is reflected in phase of the times, and a literary pursuit of a writer is regarded as a spiritual work being ahead of the times. Yujeong Kim is estimated as a writer who persistently deal with the realities of life under the rule of imperialism in his novels. Thereupon, present readers are able to understand the actual life of the colonial period of 1930's, and can reflect their own lives in comparison with the lives of the characters in his novels.

* key words : poverty, desires, prostitution, foolish character, ironical usage of languag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학 교육 목표의 공통 분모는 문학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감상을 통해 문학을 창조하거나 비평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이다. 7차 교육 과정의 문학 영역의 특징적 변모 양상을 보면 7차 교육 과정은 이원적으로 존재했던 문학 과목을 하나로 통합한 것과 목표로서 문학 능력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 국어과 전체 영역과 조응하여 본질, 원리, 태도로 내용 체계를 확립한 것, 이해와 감상을 수용과 창작으로 바꾸고 이에 창작 교육을 도입한 것, 속성 및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 내용을 선정한 것[1] 등을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이대규[2]는 소설 교육의 참다운 목적을 '개별 작품이 제공하는 문학적 경험을 상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작품이 재기하는 진지한 문제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현실적 문제를 좀더 높은 수준에서 사고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 이론에 기초하여 소설 작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지녀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수용 미학[3]에서 창작 작품인 텍스트는 작가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며,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는 데서 출발하여 문학 작품의 참다운 이해는 독자의 참다운 독서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

---

1)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2면, 31면
2) 이대규, 「김동인의 단편소설 '붉은 산' 해석」, 『한국현대작가작품론』, 제일문화사, 1990, 324면
3)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11~14면

다. 다시 말해 작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으로 하나의 작품은 수용자인 독자가 읽고 내면화시킬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 이론은 독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아니라 작품은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문학 작품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읽혀지지 않는 작품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독자 역할의 필요성을 논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본질적인 의미에서 문학 작품의 참다운 이해는 '독서 행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4]

그런 측면에서 문학 작품, 특히 교과서에 실린 소위 고전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성과의 대화에 있다고 본다. 고전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대화하지 못한다면 즉, 그 작품의 현실을 지금 내가 놓인 현실과 대비하며 대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박물관 수장고 속의 낡은 유물과 다름없다. 독자를 만나 수용되지 않은 작품은 종이묶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읽을 때 그들은 자연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소설이라는 것이 작가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 즉 인간, 사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절실함이나 아픔, 고통 등을 작품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자기 구원에의 모색을 꾀하는 효율적 장치라고 할 때, 작가 김유정이야말로 문학을 삶 그 자체로 보고 살아 있음의 확인으로서 문학 창작에 매달린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현재와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이나 세계가 살 만한 세계인가 그렇지 못한 세계인가를 끊임없이 반성

---

4) 차봉희,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5, 11~12면

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 고민하며 조금 더 나은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꿈꾸게 된다. 따라서 그의 소설을 통해서 그가 암울했던 1930년대를 어떻게 작품 속에 형상화시켰으며, 작중 인물들로 구현된 당대인들이 그들 앞에 놓인 참혹한 운명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몸부림쳤는가를 고찰해 보고, 김유정의 작품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긴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김유정 소설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 김문집[5]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김유정 문학의 특질을 그의 '개성'과 '전통적 조선 어휘의 풍부와 언어 구사의 개인적 묘미'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는 언어에 대한 상찬에만 치우친 나머지 김유정은 문학적 교양이나 작가 수업이 축적되지 않아서 '제작상의 꼴'도 체득하지 못한 작가요 따라서 김유정 소설을 몰기교로 파악하는 등의 본질적 착오를 범하기도 하였다.[6]

그 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평가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연구 경향을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에 대한 접근을 들 수 있는데 크게 어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이러니의 측면을 고찰한 연구로 대별된다. 방언, 육담, 구어, 욕설, 비어 등에 대한 관심은 어휘적 특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드러나는데 김용직[7]은 유정 소설에서 시적 산문과 토속적 화술 그리고 문장의 길이 등에

---

5) 김문집, 「고 김유정군의 예술과 그의 인간 비밀」, 『조광』 특집, 1937, 108면
6) 박정규, 「김유정 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1, 11면

주목하였으며, 이재선[8]은 해학적인 토운과 비미적 현장의 속어를 지적한다.

전상국[9]은 유정의 언어가 만무방들의 열린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정의 소설 쓰기 기법은 '가면쓰고 능청부리기'였다고 본다. 그리고 김상태[10]는 활력의 언어, 이중의 비전, 아이러니적 양상, 투사적 아이러니를 유정 문학의 개성적인 문체 특질로 파악하고 있으며, 박준일[11]은 김유정이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어휘와 생활 체험에서 얻어진 비유, 그리고 전통적인 해학적 표현 기법을 통해 우직하고 단순하여 한국적인 체취가 물씬 풍기는 소박하고 어리석은 인물들을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소설적 미학으로 형상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강심호[12]은 김유정의 문체는 근대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적 동질화의 힘에 반항하는, 규범에 위반하는 위반 의식에 기반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술 시점, 서술 상황, 서술 전개들에 관한 접근도 문체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유정 문학이 방언, 비속어, 육두 문자 등의 언어 구사, 전통적인 해학, 아이러니를 통해 30년대의 농촌의 궁핍상을 솜씨 있게 드러내었다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둘째, 전통성에 대한 논의는 해학, 혹은 웃음의 전통과 연결되어 설명되거나 향토적 정서와 관련되어 설명되기도 하는데 먼저, 서정록[13]은 후기

---

7) 김용직, 「반산문적 경향과 토속성-김유정의 소설문체」, 『문학사상』 22호, 1974, 18면
8) 이재선, 「희화적 감각과 바보열전」, 『문학사상』 22호, 1974, 303면
9) 전상국, 「김유정 소설의 언어와 문체」,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19면
10) 김상태, 「김유정의 문체」, 『문체의 이론과 해석』, 새문사, 1982, 32면
11) 박준일, 「김유정 소설의 문체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1, 52면
12) 강심호, 「김유정 문학의 위반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11면
13) 서정록, 「한국적 전통에서 본 김유정의 문학」, 『동대논총』 1집, 1969, 8면

평민문학의 특질인 아이러니와 유머가 유정 문학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있다고 파악했으며, 신동욱[14]은 「홍부전」의 골계미가 김유정의 세계에 계승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정한숙[15]에 의해 교정의 과정을 거친다. 그는 고전 문학 작품의 해학은 적극적인 웃음이며, 피상적이고 수사학적인 해학임에 반해 김유정 작품에 나타나는 해학은 본질적인 웃음이며, 필연적인 웃음이며, 소극적인 웃음이라 하여 김유정 소설의 해학을 '변이된 해학'으로 규정하고 전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전신재[16]도 유정 문학의 전통성 규명에 끈질기게 매달려 왔는데 그는 판소리와 김유정의 소설, 그리고 채만식의 소설을 비교하여 김유정과 채만식은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하되 단순히 답습한 것이 아니라 1930년대의 궁핍하고 모순된 사회를 보는 시각으로 판소리를 수용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며 구비 문학적 요소와 설화의 구성 원리가 수용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한만수[17]는 바보 민담, 판소리계 소설과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바보의 유형 및 특성의 유사점을 지적하면서 전통성을 드러내고 있고, 박현도[18]는 김유정이 고전의 전통 속에서 중세 평민 문학의 인간상의 패턴을 발견하고 이것을 현실 속에 용해시켜 현대의 한국적 인간상을 창조해 냈을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좁고 허황된 요설(饒舌)과 해학을 현실의 생활 속에서 박진감 있는 한국적 해학으로 재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성, 해학, 토속성에 관한 설명은 김유정 문학이 평민 문학의 전통을 근대 소설미학으로 토착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문학사적 연속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셋째, 유정 문학의 현실 인식에 대한 연구다. 현실 인식 문제는 작품의

14) 신동욱, 「숭고미와 골계미의 양상」, 『창작과 비평』 22호, 1971, 169면
15) 정한숙, 「해학의 변이」, 『현대한국작가론』, 고려대출판부, 1976, 87면
16) 전신재, 「김유정 소설의 판소리 수용」, 『강원문화연구』 4집, 1884, 26면
17) 한만수, 「한국 서사문학의 바보인물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3면
18) 박현도, 「김유정 소설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9, 78면

사회, 역사적 조건을 중시한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근래에 오면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먼저 김우종[19]은 김유정이 현실적 상황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한 작가로 보고 '역사 의식이 없는 피에로의 곡예'라고 김유정 문학의 현실 인식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구인환[20]은 '현실을 고발하거나 개선하려는 역사 의식의 결여로 김유정 소설은 패배자의 비굴한 희화가 되고 만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임헌영[21]도 김유정 문학이 '인생파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현실의 문제점 대변에 실패했다.'라고 보아 그의 소설에서는 어떠한 현실 인식이나 역사 의식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동욱[22]은 김유정을 '일제하 사회 구조가 빚어낸 모순과 갈등을 극적으로 표현한 사실주의의 전통적 작가'라고 보아 1930년대 당대의 사회적 문맥과 일치하는 정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윤식과 김현[23]은 '하나의 소설적 트릭도 없이 있는 세계를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그는 어떤 작가보다 식민지 치하의 농촌의 궁핍상을 여실하게 묘파해 낸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는 김병익[24]을 거쳐 윤지관[25]에게로 이어진다. 윤지관은 이러한 논의의 관점들을 한꺼번에 검토한 자리에서 김유정 소설이 감상적인 흙의 예찬이나 브나로드식 계몽 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도, 사회 의식을 강조하는 카프측의 문학과도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민중적 관점과 시적 형식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파악했다.

---

19) 김우종,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4, 266면
20) 구인환, 『한국현대소설연구』, 삼영사, 1983, 345면
21) 임헌영, 『국문학논문선』, 민중서관, 1977, 370면
22) 신동욱, 「김유정고-목가와 현실의 차이」, 『현대문학』 통권 169호, 1969, 284~287면
2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0, 197~199면
24) 김병익, 「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 『문학사상』 22호, 1974, 284면
25) 윤지관, 「민중의 삶과 시적 리얼리즘-김유정론」, 『세계의 문학』 48호, 1988, 5~6면

그리고 김윤호[26]는 김유정이 이미 상황 안에 던져진 사회 현실의 나상을 투시한 작가로서, 참담한 상황에 대한 본질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증언한 작가라고 평가했으며, 최재창[27]은 김유정 작품이 식민지 시대의 비참한 현실과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면서도 그것을 겉에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자칫하면 비분 강개에 빠지거나 감상화할 우려가 적지 않은데, 이를 극복하고 당대의 궁핍한 우리 농촌의 인생들을 현실로부터 소설이라는 문학적 공간 속으로 옮겨와 형상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현실에 대한 첨예한 의식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김유정 소설의 건강성과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김유정 문학은 문체에 대한 접근, 전통성과 현실 인식에 관한 논의 등 주로 세 방향에서 연구되어 왔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시

문학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이며, 인간의 삶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작가 김유정은 193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작가로서, 식민지 상황에서 가난으로 인해 궁핍화의 길을 걸어야만 했었던 민족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소설 미학으로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추구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고는 김유정 소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는 제1차부터 제7차 교육 과정까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작품들, 「金따는 콩밧」, 「만무방」, 「봄·봄」, 「소낙비」, 「가을」, 「안해」 등 여섯 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김유정

---

26) 김윤호, 「김유정 소설 연구」, 관동대 석사학위논문, 1990, 4면
27) 최재창, 「김유정 소설의 현실 수용 양상」,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89면

소설의 현실 인식의 양상과 작품의 형상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김유정 작품이 1930년대 현실을 적확하게 묘사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자본주의의 화폐 경제가 농촌 사회에 침투하면서 만들어낸 욕망의 결과[28]라는 견해도 일부 받아들이면서 김유정 작품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현실 인식에 관한 작가 의식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는 작품「만무방」은 실제 수업을 위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제7차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면에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발표 수업을 통한 그의 작품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양상에 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김유정 문학이 가지는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구해 보고자 한다.

28) 강심호,「김유정 문학의 위반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23면

Ⅱ. 작가의 삶과 문학 의식

1. 작가의 삶

김유정은 1908년 1월 11일에 태어났다. 작가의 출생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김영기[29]가 강원도 춘성군 신남면 증리 427번지(일명 실레마을) 출생이라 한 것과, 하나는 전상국[30]이 서울의 진골(종로구 운니동) 출생이라고 한 그것이다.

그는 조선조 말의 세도가였던 김 육(1580~1658)의 10대 손이며 본관은 청풍이다. 아버지 김춘식은 실레마을의 천석꾼 지주였으며 서울의 진골에도 백여 칸 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31] 김유정은 천석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곱 살에 어머니 청송 부인이, 아홉 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형 유근과 형수의 손에 의해 성장하게 된다. 가산의 관리자요 유정의 보호자였던 형 유근은 술과 난봉으로 재산을 축내면서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김유정은 어려서 이웃의 글방에서 천자문, 논어 등을 수학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1919년에 서울의 재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 15세 되던 1923년에는 재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다. 같은 해 유정은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이 때까지는 가세가 완전히 기울지 않아 형으로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받았다. 휘문고등보통학교 시절 김유정은 신소설 작가였던 안국선의 아들이자 훗날 다량의 사소설을 쓰고 월북하게 되는 안회남과 같은 반이 되어 많은 교류를 나누게 되고, 그 때 비로소 독서와 문학에 눈뜨

29) 김영기,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5~27면
30) 전상국, 『유정의 사랑』, 고려원, 1993, 5면
31) 김영수, 『김유정의 생애』, 현대문학사, 1968, 402면

기 시작하였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김유정은 잠시 휴학했다가 1930년 휘문고등보통학교 5학년을 졸업하고 그 해에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연희전문학교를 곧 자퇴하고 만다.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9년 무렵 김유정은, 남편과 이혼하고 피복공장에 다니는 누이 유형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다. 이 시기에 병고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치질과 폐결핵은 평생토록 그를 괴롭혔고 결국은 죽음까지 몰고 갔다.

1930년 김유정의 나이 22세 되던 해에 나빠진 건강, 어려워진 재정, 학업 등으로 마음의 안일을 찾지 못하던 즈음, 그는 고향 마을 강원도 춘성군 실레 마을을 찾아 자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생활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931년 실레 마을에 야학당을 열고 이를 농우회로 개칭했으며 이듬해 금병의숙(金甁義塾)으로 다시 개칭하여 간이학교 인가를 받아 농민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김유정은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현상모집에 「소낙비」가,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입선되면서 공식적으로 문단에 등단, 비로소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나날이 악화되어 온 폐결핵으로 인해 요양과 치료를 받았으나 이렇다 할 효험을 보지 못한 채 1937년 3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산곡리에 있는 다섯째 누이 유흥의 집에서 29세의 나이로 운명하고 만다. 그는 병고와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았음에도 생의 악조건들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면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삶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그의 정신적 일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의 작품 밑바탕을 형성하였고, 작품 속 주인공들을 통해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은 공식적으로 1933년에서 1937년까지 창작활동을 하였다.[32] 그

동안 28편의 단편 소설, 1편의 미완성 장편소설 「생의 반려」, 번역소설 「잃어진 보석(반다인 원작)」, 번역 영국동화 「귀여운 소녀」, 아기장수 전설에서 소재를 취재한 동화 「두포전」 등 김유정은 1908년 1월 11일에 출생하여 1937년 3월 29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총 32편의 소설과 15편의 수필을 남겼다. 간략하게나마 그가 남긴 소설 작품 목록[33]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2) 정형곤, 「역신의 체험」, 『한국현대작가작품론』, 제일문화사, 1990, 500면
33) 전신재, 『원본 김유정 전집』, 강출판사, 1997, 674~675면

소설 작품 목록

번호	제목	시집	분량	발표일자	집필완료일자	무대 및 인물	발표지	비고
1	소낙비	3	66매	1935. 2. 8	1933년	농촌 유랑민	조선일보	신춘문예당선작
2	노다지	2	55매	1935. 3. 2~ 9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당선작
3	금따는 콩밭	3	61매	1935. 3		농촌 농민	개벽	
4	떡	1	59매	1935. 6	1935. 4.25	농촌 농민	중앙	
5	만무방	3	130매	1935. 7.17~30	1934. 9.10	농촌 농민	조선일보	
6	산골	3	69매	1935. 8	1935. 6.15	농촌 농민	조선문단	
7	솥(정분)	3	94매	1935. 9. 3~14	1934. 8.16	농촌 농민	매일신보	1937.5 조광에서 정분으로 발표
8	봄밤	3	4매	1935.10		서울 시민	여성	
9	봄 · 봄	1	63매	1935.12		농촌 농민	조광	
10	안해	1	50매	1935.12		농촌 농민	사해공론	
11	심청	3	18매	1936. 1	1932. 6.15	서울 무직자	중앙	
12	산골 나그네	3	57매	1936. 1	1933. 1.16	농촌 유랑민	사해공론	
13	가을	1	46매		1936. 1	농촌 농민	사해공론	
14	봄과 따라지	3	39매	1936. 1		서울 거지	신인문학	
15	두꺼비	1	54매	1936. 3		서울 학생	시와 소설	
16	이런 음악회	1	21매	1936. 4		서울 학생	중앙	
17	동백꽃	1	38매	1936. 5	1934. 3.24	농촌 농민	조광	
18	총각과 맹꽁이	3	42매	1936. 7	1935	농촌 농민	조선문단	1933.9「신여성」에 발표
19	야앵	3	70매	1936. 7	1936. 4.25	서울 여급	조광	
20	옥토끼	1	21매	1936. 7	1936. 5.15	서울 서민	여성	
21	정조	3	49매	1936.10		서울 부자집	조광	
22	슬픈 이야기	1	42매	1936.12		서울 서민	여성	
23	연기	1	17매	1936.?		서울 무직자	창공	
24	금	3	34매	1937.?	1935. 1.10	금광 광부	?	
25	따라지	3	111매	1937. 2		서울 서민	조광	
26	땡볕	3	35매	1937. 2		서울 서민	여성	
27	귀여운 소녀	3	65매	1937. 4.16~21			매일신보	영국동화
28	잃어진 보석	3	596매	1937. 6~10			조광	반다인원작 번역작품
29	생의 반려	1	172매	1937.10.11		서울 학생	중앙	미완성 장편소설
30	두포전	3	138매	1939. 1~ 5			소년	동아「아기장수」전설 소재
31	형	1	35매	1939.11	1931.?	서울 부자집	광업조선	1973.6 문학사상
32	애기	3	112매	1939.12	1934.12.10	서울 서민	문장7권12호	영국동화

2. 작가의 문학 의식

김유정의 문학 의식은 「병상의 생각」34)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김유정은 박용철 시인의 동생이었던 박봉자를 '근대식으로 제작되어진 한 덩어리의 예술품'에 비유하면서 이를 문학 작품에 빗대고 있다. 즉, 김유정은 문학 작품을 '근대식으로 제작되어진 것'이라 보고 문학 작품의 창작을 '제작'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메시지 전달을 포기한 예술파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예감하고 있다.

> **오늘날, 우리가 처할 길은 우리 머리속에 틀지어 있는 그 선입관부터 우선 두드려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새로히 눈을 떠,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을 대하여야 할것입니다.**
>
> **그러나 그새로운 방법이란 무엇인지 나역 분명히 모릅니다. 다만 사랑에서 출발한 그 무엇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있을뿐입니다.**
>
> **그리고 다만 한가지 믿어지는것은 사랑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있어서나 좀더 많은 대중을 우의적으로 한끈에 꿸수있으면 있을스록 거기에 좀더 위대한 생명을 갖게되는것입니다.**
>
> **오늘 우리의 최고이상은 그 위대한 사랑에 있는것을 압니다.**

김유정은 우선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정한다. 즉, 그러한 예술이 드러내기 쉬운 기교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김유정이 생각한 예술적 가치란 새로운 기교의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역할을 가져오는 데 역점

---

34) 전신재, 앞의 책, 464~472면

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홍길동전」이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유정은 문학에 있어 최고 가치를 '사랑'에 두었다. 그리고 '사랑'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 좀더 많은 대중을 한 끈에 꿸 수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좀더 위대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따뜻한 인간애와 건강한 인간성을 바탕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유정은 '나에게 있어 문학이란 나의 생활의 한 과정'이라고 하여 그에게 있어 문학은 삶 그 자체였으며 생활 즉, 삶과 유리된 문학을 거부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또 김유정의 독서 목록[35]을 살펴보건대 「죄와 벌」, 「가난한 사람들」, 「귀여운 여인」, 「외투」, 「마리아와 광대」, 「홍당무」, 「아큐정전」 등 대부분이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이고, 주인공들이 가난한 하층민임을 볼 때 김유정 소설의 주인공들이 가난한 농민이나 도시 하층민과 일치됨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그리고 1936년 「풍림」의 '새로운 문학의 목표'라는 설문에 응답한 글[36]에서도 김유정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다.

> 우리의 정조
>
> 이 時代의 風霜을 足히 그리되 血脈이 通하야 제물로는 能히起動할수있는 그런性格을 鑿穿하는곳에 우리의 宿題가 놓여있는듯도 하오니 爲先 그 무엇보다 우리의 情調와 交拜할지니 第一아즉 品不足이라면 그 傳統으로 하여금 亡身을 시키기에 須臾의 躊躇이나마 지닐수 있을만치 고만치라도 禮儀를 찾는 것이 곧 우리의 急務라 하겠나이다.

35) 김영수, 앞의 책, 402면
36) 전신재, 위의 책, 479면

김유정은 당대의 '풍상' 즉, 당대적 삶의 모습을 소설로 옮겨야 한다고 봄과 동시에 '우리의 정조와 교방'하는 전통의 측면 즉, 혈맥을 잇는 것을 우리 문학의 급선무로 보았다. 다시 말해 그의 문학 의식은 대중을 하나의 끈에 꿰려한 '사랑'과 '혈맥'이 통하는 전통 지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김유정은 그의 문학에서 당대 민중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글쓰기를 통해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유정은 당대의 궁핍상을 다루면서도 감상적인 웅변이나 생경한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반어와 해학과 같은 예술적 방법을 통해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특유의 예술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독특한 소설 미학으로 인해 김유정 소설의 건강성과 문학적 의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현실 인식의 양상과 작품의 형상화

1. 현실 인식의 양상

1)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궁핍화 현상

1930년대 한국 사회는 일제의 식민 체제의 강화에 따라 궁핍화 현상이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 초기부터 한국을 그들의 식량 공급지로 묶어두기 위해서 1912년에 시작하여 1918년에 완료한 토지조사사업을 필두로 1920년부터 제1차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농촌 사회를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초부터는 '농촌진흥운동'을 일으켜 침략전쟁의 발판을 위해 가혹한 식량 공급을 강요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지주제를 강화하여 지주를 보호한다는 명목 대신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을 몰락시켜 농민들을 궁핍화로 몰아 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탈 정책의 피해를 농민이 감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당수의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인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이 시기에 벌어진다.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미곡의 생산이 증가되었음에도 오히려 한국 농민들이 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식민 정책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자력이 빈약한 자작농이나 중소지주는 장기에 걸쳐서 수리조합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토지를 방매하게 되어 수리조합구역내의 토지 가격은 급락하였다. 이 까닭에 일본인과 조선지주들은 헐값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의 겸병집중은 급속히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주들은 수리조합이 설치되자 소작인에 대한 수취를 강화하였으며 심지어는 조합비까지도 소작인에게 전가시켰으므로 소작농민의 상태도 악화되었다. 이리하여 산미증식계획은 효과보다도 농촌의 계급 분

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온 것이다.

위의 글[37]은 일제에 의해 진행된 조선 농업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에서 농민의 계급적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자력이 빈약한 자작농들은 토지를 방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해 갔음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시대란 우리가 세계에 자유롭고 정직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의 소설 작품을 대할 때 어떤 체험이 가능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삶의 고통에 대한 당대 작가들의 태도를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란 재삼 제언할 필요 없이 체험이 고통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체험의 중요한 질적 양상이 되었던 시대다. 식민지 시대의 작품은 여러 가지 고통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당대 작가들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가 있는 것이다.[38]

포스터는 인간사는 태어남, 밥, 잠, 사랑, 죽음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빚어지는 것[39]이라고 추정했고,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설가들은 다섯 가지로 압축되는 삶의 문제를 재생하거나 확대, 축소하고 있다고 본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작품에 이르러서는 결국 작품이 곧 작가의 삶의 방식이라는 필연적인 모습이 밝혀진다.

20세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실주의 소설들은 이 '밥'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1910년대 이후 일제는 식민지 정책일환으로 우리의 전 국토에 걸쳐 토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지의 수탈을 감행하여 민족적인 빈곤과 경제적 몰락이라는 궁핍의 돌풍을 안겨다 주었다.

---

37) 전석담, 『조선경제사』, 박문출판사, 1948, 243~244면
38) 김준오, 「비가적 세계와 순수자아-영랑론」, 『한국현대작가작품론』, 제일문화사, 1990, 116면
39) E.M.Forster, 『*Aspect of novel*』, Penguin Book, 1972, 55면

1930년대를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나라의 상황은 '밥'의 문제를 사실주의 수법으로 소설을 쓰기에 매우 적절한 작가적 체험과 시대적 현실을 제공한다. 특히 농촌 소설과 사회 소설 형태를 갖춘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이 '밥'의 문제는 심각하고도 살벌한 비판과 고발로 나타난다. 당시대적인 커다란 문제인 '밥'의 문제를 중심으로 '뿌리뽑힌 자'들이 문제적 개인으로 사회, 그리고 세계와의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을 작가 정신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유정의 소설적 상황은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이고, 이 시기는 일제하의 식민지 농업 정책이 진행되던 때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오로지 식민지 농업 정책의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농토를 잃어버리고 소작인이나 유랑 농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작가는 이와 같은 식민지하의 농촌과 농민의 처지를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대립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김유정은 작품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따라지들의 삶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정은 「닙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40)에서 시골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시골이란 그리 아름답고 고요한 곳이 아닙니다. 서울사람이 시골을 憧憬하야 산이잇고 내가잇고 쌀이 열리는풀이잇고……. 이러케 單調로운 夢想으로 哀傷的 詩興에 잠길고때 저-쪽 촌띄기는 쌀잇고 옷잇고 돈이 물밀듯 질번거릴법한 서울에 오고십퍼 몸살을합니다.**
>
> **퇴폐한 시골, 굶주린 農民, 이것은 自他업시 周知하는바라 이제 새삼스리 되일것도 아닙니다. 마는 우리가 아는것은 쌀을 못먹은 시골이요 밥을 못먹은 시골이 아닙니다. 굶주린창자의 야릇한機微는 都是모릅니다. 萬若에 우리가 本能的으로 주림을 認識했다면 곳바루아름다운 시골, 고요한 시골이라안합니다.**

---

40) 전신재, 앞의 책, 411~413면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을 낭만적인 이상향으로 그리워할 때, 유정은 삶주림의 삶만이 놓여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유정은 이러한 농촌 피폐의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모든 현상을 그의 작품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 세 편을 통해 김유정의 현실 인식의 양상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가) 「金따는 콩밧」(개벽, 1935년 3월)

농민의 일확천금에의 꿈 때문에 농촌이 파괴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金따는 콩밧」이다. 영식이는 본래 타고난 농군이다. 영식이는 본디 금점에 이력이 없었다. 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다만 밭고랑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꾸벅꾸벅 일만 하였다. 잘 열리는 콩을 보며 만족할 뿐이다. 그런데 농사는 안 짓고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는 수재가 나타나 영식에게 꾀송거리기 시작했다. 영식이는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결국은 수재의 꼬임에 빠져 생각을 돌리게 된다. 잘만 되면 신세는 핀다는 희망 아래 영식과 영식 아내는 마냥 꿈에 설렌다. 그러나 결국 영식이는 콩밭 하나만 다 버리고 그 해 농사는 다 망하게 되는 꼴을 당하고 만다.

> **그들은 밥상을 끼고앉아서 즐거웁게 술을 마셨다. 몇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이의 생각도 저윽이 돌아섰다. 따는 일년 고생하고 끽 콩몇섬 얻어먹느니 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하로에 잘만 캔다면 한해 줄것 공들인 그수확보다 훨씩 이익이다. 올봄 보낼제 비료값, 품삯, 빚해 빗진 칠원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살고 말 빠에는 차라리 가루지나 새루지나 사내자식이 한번 해볼 것이다.**

인용문은 영식이 수재의 제의를 받고 고민 끝에 자신의 콩밭을 파헤치고 금줄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대목이다. 착실한 소작 농민인 영식이가 금점판으로 돌아다니는 수재의 제의에 따라 자신의 콩밭에서 금줄을 찾으려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친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1930년대 농촌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성실하게 일하던 농사꾼 영식이 왜 금점 일에 마음을 두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영식의 흙에 대한 애착은 그것을 버린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파헤쳐진 콩에 대한 애틋함에서 영식의 농민으로서의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생업의 전환을 꾀해 볼 수밖에 없는 사태야말로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돈 칠 원의 빚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 딱한 사정과 함께 삶의 기초가 되는 '밥'의 문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농사를 지어도 지주가 다 가져가 버리고 등에 흐르는 땀과 빚만 남는 현실에서 땅은 농민에게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다. 차라리 땅에서 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농민으로서의 삶은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비료값, 품삯조차 갚을 길 없는 곤궁으로 그들 부부를 몰아넣었던 것이며, 섣불리 농사만 짓고 있다간 결국 비렁뱅이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당시 농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 「만무방」 (조선일보, 1935년 7월)

소설「만무방」은 궁핍한 삶 가운데 상반된 길을 걸어온 응칠과 응오 형제의 이야기이다. 전과 4범의 건달인 형 응칠은 절도에도 능한 노름꾼이며, 사회적 윤리의 기준에 위배되는 '만무방'이다. 이와는 달리 동생 응오는 모

범적인 농사꾼임에도 벼를 수확해 봤자 남는 것은 빚뿐이라는 절망감으로 벼 수확을 포기한다. 웅오네 논의 벼가 도둑맞는데 형인 웅칠이가 범인을 잡고 보니 의외로 논의 주인인 동생 웅오였다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일년 농사를 짓고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뿐'이라는 인식(認識)은 당시 소작농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한해동안 애를 조리며 홋자식 모양으로 알뜰이 가꾸든 그 벼를 거더드림은 기쁨에 틀림업섯다. 꼭두새벽부터 엣, 엣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를흐르는 식은 땀이 잇슬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니보다 끗업시 부끄리웟다. 가치 털어주든 농무들이 뻔히 보고섯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건 진정 열쩍기 짝이업는 노릇이엇다. 참다참다 웅오는눈에 눈물이 흘럿든 것이다.**

근 삼십여 년 전의 과거는 일제에 의한 토지 개혁이 있기 이전의 시기인데, 그 때는 '흥에 질리어 어깨춤이 덩실거리는' 풍성한 가을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가을은 도둑이 성행하여 살기마저 감도는 험악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하게 된 원인은 일제 식민 통치하의 수탈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만무방」은 찌들린 가난 속에서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지주와 장리를 놓은 사람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거기에 빚만 늘어가는 비참한 현실의 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당대의 농촌 현실이 갖는 구조적 모순을 모범 농군이 도둑이라는 응오의 상반된 행위를 통해 결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 「봄·봄」(조광, 1935년 12월)

소설 「봄·봄」은 성례를 바라며 지난 삼 년 칠 개월을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년간을 데릴사위로 살아야 하는 '주인공'과 공짜로 머슴을 부리려는 속셈으로 점순의 키를 핑계 대며 성례를 지연시키는 약삭빠른 '장인님'이 엮어내는 이야기이다.

딸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술수, 아버지의 행동에 반발하여 '나'를 충동질하는 점순이의 당돌함, 장인의 술수에 대항하나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우직함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희극적 상황은 확장된다.

딸이 크면 성례시켜 주겠다는 구실로 데릴사위를 네 명째 갈아치우고, 키가 다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을 마음껏 부려먹는, 약고 배포 유한 배 참봉의 마름인 '봉필'이나, 부모 앞에서나 마을 어른 앞에서는 깍듯한 행동거지와 내외를 하지만 단 둘이 있을 때면 혼자 말투로 쫑알거리며 '나'에게 자극을 주어 결정적인 싸움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끝에 가서는 느닷없이 아버지 편을 들어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점순이'나, 데릴사위에 희망을 걸고 사 년 동안이나 뼈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 농촌 총각 '나'나, 일 년 살고 장가들었다는 '영득이'나,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 장인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뭉태'나, 장인님에게 땅 두어 마지기 얻어 부치며 귓속말로 소근거리어 나를 얼르고 달래는 '구장'이나 하나 같이 내숭떨며 의뭉스럽게 속이 차 있는 인물들[41]로서 이 사건 진행의 주요 동인은 결국 가진 자의 횡포 속에서 못 가진 자의 가난과 빈곤의 궤적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사태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말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것이 아니라 그딸도 데릴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말

41) 박선부, 「김유정 소설의 문학적 지평」,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3, 138면

이 열살때부터 열아홉 즉 십년동안에 데릴사위를 갈아 드리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낫지마는 열네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올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누라고 연광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먹으니까 뱰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재 딸인데 내가 일태면 그 세번째 데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담으로 네번째 놈이 들어올것을 내가 일두 참 잘하구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안는다. 셋재 딸이 인제여섯살, 적어 두 열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된다.

이 작품의 결말부에는 주인공과 장인의 한판 싸움 끝에 장인이 주인공에게 성례를 약속하고 터진 머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장인의 행동에 주인공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나, 독자들은 작년 봄의 성례 약속이 그 해 가을에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이번의 약속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장인의 임기응변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인공과 장인의 희극적인 대결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처럼 김유정 소설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처절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작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등장 인물이 현실을 해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데[42]에서도 그 원인의 하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소설 「봄·봄」은 1930년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마름인 장인과 데릴사위인 '나'와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그 당시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인 소작 제도 아래에서 마름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고, 그 횡포 아래에서 소작민으로 전락한 우리 농민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채 얼마나 힘든 삶을 영위해 나갔는지를 작가는 가벼움을 가장한 어두운 목소리로 1930년

42) 박정규,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2, 11면

대 시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작품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2) 궁핍 현상과 매춘 모티프

한편 1930년대 우리 한국 사회도 급속하게 근대화되는데 김유정에게 있어 근대화는 도시화로 표상되며 그것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김유정이 작품을 통해 나타내려는 의도는 '도시화로 표상되는 근대적 변화에 의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진다.'[43]는 것이었다. 일본에 의한 도시화는 엄청난 희생과 불균형 속에서 타율적으로 감행된 것으로 농촌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폐하여 극도의 궁핍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절대적 궁핍은 주인공들로 하여금 노름과 금광에 몰두하게 하였고, 돈에의 갈망은 결국 인간성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어 종국에는 인간마저도 상품화하기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화폐의 본질은 사회학에서 줄곧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또한 경제학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마르크스는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화폐를 '보편적인 매춘부,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비인격적인 기준으로 대치함으로써 바로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환의 매개체로 지칭하고 있다.[44] 화폐는 공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질적인 성질에 상관없이 상품끼리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런 점에서 특히 김유정 작품에 나타나는 '들병이'[45]라는 토속적인 인물의

---

43) 김윤정, 앞의 글, 18면

44) Karl Marx, 『*Grundrisse*』, Harmondsworth:Penguin, 1973, 27면

45) 김유정은 <朝鮮의 집시>라는 수필의 부재를 '들병이 철학'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유정은 '아내를 求景거리로 開放할 意思가 있는가 或은 그만한 勇氣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가끔 묻고 싶은 衝動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自己의 아내를 대중의 구경거리로 던질 수 있는가, 그것이다.(…) 極盡히 愛之重之하는 自己의 아내를 대중에게 奉仕하겠는가, 말이다.'라고 하면서 밥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내놓고 먹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김윤식은 이것을 '들병이 사상'이라 명명하였다. 김윤식은, <구인회>와의 관련 속에 김유정을 파악하면서 김유정이 '큰예술가'의 범주에로 이를 수 있었던 이유로 '말더듬이 현상'과 '들병이 사상'을 들고 있다. '언어장애 현상으로 요약되는

등장은 인간성의 파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30년대는 조선 사회가 비록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나 경성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화,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었고, 전조선적인 자본주의화라는 구조적 변동은 그것이 도시와 농촌의 경관을 바꿔놓고 대다수의 조선인들을 궁핍한 현실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경제와 화폐라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서서히 확산되고 정착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식민지 시대는 자본과 개인으로 축약되는 근대의 본격화와 그 진행을 같이 한다. 화폐에 의해 배태되는 금전적인 인간 관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비인간적인 것이었고, 이는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병상의 생각」46)에서 김유정은 근대 과학이 참으로 놀랍기는 하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시킨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근대과학은 참으로 놀라울만치 발달되어 갑니다. 그들은 천문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눈앞에서 콩알을 고르듯이 천체를 뒤저봅니다. 일생을 받쳐 눈코 뜰새없이 지질학을 연구합니다. 천품으로 타고난 사람의 터를, 혹은 콧날을 임의로 느리고 주립니다. 근강한 혈색을 창백히 만들고서 조석을 피하고 앨 키웁니다. 찌저께비로 사람을 만들어 써먹노라 랜스리 속을 태웁니다. 소리없이 공중으로 떠보고저하야 그 실험에 떨어져 죽습니다. 두더지가치 산을 파고 들어가 금을 뜯어내다가 몇십명이 그속에 없 듯이 묻힙니다. 물속으로 쫓아가 군함을 깨트리고 광

말더듬이 현상 속에 김유정 특유의 표현의욕(문학에의 실천)이 잠복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 절대적인 표현의욕에 '들병이 사상' 즉, (아내를 내놓고 그리고 먹는 것)인 자기 기만의 사상을 실은 것으로 김유정 문학을 파악한다. 이 '들병이 사상'이란 들병이의 남편의 의식의 총칭에 붙여진 철학으로 자기 아내를 매음시켜 그것으로 생계를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즐기기조차 하는 사상으로 극도의 절망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김유정이 그의 소설 속에서 들병이 철학을 그릴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또한 들병이 철학의 소유자였기 때문인지 모른다. 실업자의 상태로 과부의 몸으로 노동을 하면서 혼자 살던 누나의 노동에 기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말이다.

46) 전신재, 앞의 책, 467면

신으로 사람을 녹이고, 공중에서 염병을 뿌리고 참으로 근대과학은 놀라울만치 발달되어 있읍니다.

김동노는 그의 논저[47]에서 밝히기를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이해는 우리 역사를 의미 있게 되돌아보고 현대 한국 사회를 통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근대성의 시발점인가라는 문제는 역사학이나 사회학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 식민지 초기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새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식민지 시대의 근대성 논의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토지조사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민지 수탈론이고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두 입장의 공통된 문제는 전통적 농업사회가 경제적 근대성을 확립하는 길은 농업자본주의를 통하는 것이라는 단선론적 역사 인식이다. 이들이 보는 근대는 자본주의가 형성, 발전하는 시기이고, 근대성이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제도를 의미한다. 토지조사사업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듯이 두 차원에서 근대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하나는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적 지세 제도의 성립이었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나타난 근대성의 두 측면에서 모두 지주, 특히 대지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선택했고, 그에 따라 조선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오세영은 그의 논저[48]에서 근대인의 삶의 양식은 흔히 개인주의 혹은 자아주의로 특징 지워지며, 아울러 자본주의 인간상의 본질이기도 한데, 그것은 개인주의 옹호 없이 자본주의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47) 김동노, 「식민지 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 비평』 26권, 창작과 비평사, 1998

48) 오세영, 「근대시의 형성과 그 시론, 한국현대시론사」, 『한국의 현대문학』 2, 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2, 9~13면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인 자유시장경제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의 개발 및 능력의 발양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좁은 의미에서 근대 문학과 현대 문학의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근대성에 대해 정치면에서 민주주의와 민중주의, 경제면에서 자본주의, 윤리면에서 휴머니즘, 세계관은 과학적 세계관인 계몽주의, 삶의 양식은 개인주의 자아 발견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의 견해는 한 마디로 말해서, 근대성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 문학 혹은 근대시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이념이 그 형식이나 기법이나 내용면에서 그대로 반영된 문학 혹은 시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의 성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그 까닭은 근대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혁을 거듭하며 그로 인해서 근대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변화는 1900~1910년 이후에 일어나는데, 삶의 물화, 물신숭배, 교환가치의 지배, 자아 혹은 인간의 해체, 문명사에 대한 종말론적 의식 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제 가치들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근대 세계에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에 관한 사회학적 저서에서 주류를 이루어온 이미지는 근대성은 일종의 괴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명쾌하게 근대성의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를 인식한 학자였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근대 세계를 운영하는 비합리적 방식일 뿐이었다고 보았다.[49]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유정 작품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더불어 등장 인물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자본주의 화폐 경제가 농촌 사회에 끼친 욕망의 결과라는 견해도 받아들이면서 김유정의 작품이 그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드

---

49) Anthony Giddens, 앞의 책, 1990, 35면

러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김유정의 소설 세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궁핍의 문제는 주로 가족의 해체를 통해 부각되는 특징을 안고 있다. 가족의 해체와 그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김유정 소설의 매춘 모티프다. 매춘의 중심에는 물론 일제의 수탈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 던져진 1930년대 농민들이 왜 파멸과 유랑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매춘 구조를 통해 들여다보면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돈'에의 욕망과 그것에 기인한 인간성의 파탄이 가져오는 인간의 상품화는 김유정 단편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티프로 아내를 매춘시키거나 아내를 파는 것, 혹은 매매혼의 모습이라든가 들병이 등으로 보여진다. 특히 들병이를 다룬 것은 김유정 소설에 나타나는 독특한 소재인데 이 들병이는 토속적 특색을 지님과 동시에 인간의 물화라는 근대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렇듯 한국 농촌의 예속을 위한 일제의 식민 정책으로 인해 농촌은 여지없이 피폐하여 갔다. 여기서 소작농의 지위가 위협받을 때 그들이 생존의 방편으로 채택한 것이 잠채꾼, 도시 노동자, 나무꾼, 들병이 들이고, 이들 직종은 절도, 인신매매, 도박, 매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들로 표출된다.

유정 작품에서 돈의 물신적 현상과 인간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당대 사회의 비극적 구조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부서져 간 농민들의 실체적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소낙비」(조선일보, 1935년 2월)

「소낙비」에서 춘호는 빚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모든 세간사리를 버리고 젊은 아내의 손을 잡고 밤도주를 한다. 그렇게 해서 찾아든 산골에서도 그의 삶은 여전히 곤궁하였고, 타지 사람이라 하여 땅 하나 부쳐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에는 피폐되어 가는 농민 사이를 갉도는 엉뚱한 투기심이 몸이 달떠 어떻게 하든 돈 이 원을 구하여 산골을 떠 서울로 가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다.

"이년아 기집 조타다는게 뭐여? 남편의근심도 덜어주어야지 꺼고자자는 기집이여?"

지게막대는 안해의 연한 허리를 모지게 후렷다. 까브러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리 찌그러진 울타리틈을 뻣어나간다. 잽처 지게막대는 안즌채 고까라진 안해의 발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려갈렷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개여?"

'춘호'는 돈 이 원을 구해 오지 못하는 아내를 매질한다. 여기서 '춘호'는 아내가 능히 돈 이 원을 구해올 수 있다고 믿는데, 구해오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역정을 내며 아내를 구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이 똑똑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내의 육체를 경제적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내가 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함과 동시에 아내를 물질시하는 극단에서 매춘이 성립하게 된다. 이 돈의 교환은 여자의 인격에 대한 최대의 모욕을 의미하는데 '춘호 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뒤에도 돈 이 원을 구할 수 있어 남편에게 매를 안 맞아서 다행으로 여길 뿐 도덕적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도덕관의 마비 상태는 극도의 가난이 빚어낸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도덕은 아무런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가난이 가져온 삶의 고됨은 부부 윤리를 망각하고 본능적 생존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에 따른 가책이나 후회가 없는 부정적인 상황으로의 접근[50]을 유도하는 것이다. 매춘이나 인

50) 유인순, 「김유정의 소설 공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22~23면

신 매매가 일상화되고 도덕적 판단이 되지 않는 세계에서 여자들의 성은 생물학적 생산성의 단위라기보다는 재산의 단위나 재화의 가치로 취급된다는 점이다.[51]

김유정 소설에서 매춘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성적 피해자인 여성은 여성적 자각도 없을 뿐더러 성에 몰입하거나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비극성이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52]

>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일은 성공이엇다. 그는 몸을 소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중에도 몹쓸지랄이엇으나 성공은 성공이엇다. 복을 받을려면 반듯이 고생이 따르는법이니 이까짓거야 골백번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안맛고 의조케 살수만잇다면 그는 사양치안흘것이다. 리주사를 하눌가티 은인가티 여겻다. 남편에개 부처먹을 농토를 줄테니 자기의 첩이되라는 그말도 죄송하엿으나 더욱이 돈이원을 줄테니 내일이맘때 쇠돌내집으로 넌즛이 만나자는 그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웟고 벅찬 짐이나 풀은듯 마음이 홀가분하엿다.**

이처럼 '춘호 처'는 '이주사'에게 뜻밖의 욕을 당하고도 매음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주사를 은인처럼 생각하며 돈 이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집착해 있다. 여기에는 생존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는 생존의 문제가 도덕의 문제를 압도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을」(사해공론, 1936년 1월)

「가을」이라는 작품은 가난에 지친 복만이가 자기 아내를 소장사에게

---

51) 이재선, 앞의 글, 310면
52) 박남철,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현실과 욕망의 양상」, 『한국학논집』 16집, 1989, 212면

팔아버리는 이야기인데 아내를 팔 때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야말로 인간이 상품화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복만의 아내는 오십 원에 소장사의 소유로 이전된다. 순식간에 복만이의 아내는 소장사 황거풍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처럼 여성의 성은 상품화될 수 있었는데 작가가 제시하는 매춘이나 매처의 문제는 쾌락의 추구나 인간 본성의 표출이라기보다 절대 빈곤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성의 수단화가 도덕적 혼란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매계약서

일금 오십원야라

우금은 내안해의 대금으로써 정히 영수합니다.

갑술년 시월 이십일

조 복 만

황거풍 전

여기에 복만이의 지장을 찍어 주니까 어디 한번 읽어보우 한다. 그리고 한참 의심스러 바라보며 뭘 생각하드니, "그거면 고만이유. 만일 내주에 조상이 돈을 해가주와서 물러달라면 어떻거우?" 하고 눈이 둥그래서 나를 책망을 하는것이다. 이놈이 소장에서 하든 버릇을 여기서도 하는것이 아닌가 하도어이가 없어서 나도 멍멍히 쳐다만보았으나 옆에서 복만이가 그대루 써주라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내 안해는 물러달라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제서야 조끼 단추구녁에 굵은 쌈지끈으로 목을 매달린 커단 지갑이 비로소 움직인다.

「가을」은 아내 팔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조복만은 아내와의 사이에 영덕이라는 아들까지 두었는데 그럼에도 빚 때문에 아내를 팔기로 작정한다. 그래서 복만이 친구인 내가 복만의 요청으로

불려가 계약서를 써 주고 이렇게 해서 거래는 끝나게 된다.

복만이는 황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고, 주막집 할멈은 양쪽에서 구전을 오 원씩 받아 챙기고, 영덕 어머니는 우는 영덕을 복만에게 넘기고 황거풍을 따라 나선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참혹한 가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도덕성 혼란 현상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태는 궁핍이라는 현실적 생존의 벽과 맞닿아 있으며, 윤리나 도덕이라는 관념적인 문제를 벗어나 굶어죽지 않고 가혹한 현실을 견뎌 내야 한다는 비극적인 생존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53]

김유정은 사회 의식을 지닌 인물을 그려내는 대신 정상적인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을 묘사함으로써 가난의 뼈저린 고통, 그로 인한 도덕적 혼란 현상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다) 「안해」(사해공론, 1935년 12월)

「안해」에는 아내를 들병이로 내보내 호강을 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들병이로 나갈 생각은 의뭉스런 아내가 먼저 했지만, 주인공도 이에 동의하고 아내에게 열심히 소리를 가르친다. 그런데 아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신식창가, 담배, 술까지도 남편 몰래 배우려 든다.

이런 아내의 행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아내가 건달 뭉태를 따라가 술집에서 수작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주인공은 분개하여 아내를 구타한 후 애초에 아내를 들병이로 내 보내려던 욕망을 철회하게 된다.

아내를 들병이로 내세워 돈을 벌려던 주인공은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들을 낳아서 돈을 벌 궁리를 한다. 아내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하나 같이 들병이 철학

53) 민현기, 『한국근대소설론』, 계명대출판부, 1984, 87면

의 소유자들로 아내나 자식을 매개로 돈을 벌려는 즉, 아내나 자식의 노동에 기대어서 편하게 얻어먹으려는 자들이다.

김유정 소설의 결말 중 탁월한 점은 비극으로 끝나야 할 결말이 명확한 끝을 드러내지 않고 주인공의 주관적 다짐에 의해 희화화된다는 점이다.[54] 이 작품의 결말도 주인공의 주관적 다짐에 의한 미해결 구조로 끝맺고 있는데 이것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 표현으로 보인다.

> 가다가속이 맥맥하고 부하가 끓어오를 적이 있지 않냐. 농사는 지어도 남는것이 없고, 빚에는 몰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스면 자식 놈 킹킹거려, 년은 옷이 없으니 떨고있어 이러한 때 그냥 백일수야 있느냐. 트죽태죽 꼬집어 가지고 년의 비녀쪽을 턱 잡고는 한바탕 훌두둘겨대는구나. 한참 그 지랄을 하고나면 등줄기에 땀이 뻑 흐르고 한숨까지 후, 돈다면 웬만치 샘이 가라앉을 때였다. 담에는 년을 도로 밀쳐버리고 담배 한대만 피워물면 된다.
>
> 이멋에 계집이 고마운 물건이라 하는것이고 내가 또 년을 못잊어하는 까닭이 거기 있지않냐. 그렇지 않다면이야 저를 개집이라고 등을 뚜덕여주고 그 못난 코를 좋아보인다고 가끔 추어줄 맛이 뭐야. 하지만 년이 훌쩍어리고 앉어서 우는 걸 보면 이건 좀 재미적다. 제가 주먹심으로든 입심으로든 나에게 덤비들면 어림도없다. 쌈의 시초는 누가 먼저 걸었던간 은제던지 경을 팟바발같이 치고 나앉는 것은 년의 차지렷다.(전집 171 ~ 172면)

「안해」에서 보여지는 현실 상황도 당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궁핍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다.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빚에는 몰리고, 자식 놈 킹킹대고, 년은 옷이 없어 떨고 있는' 상황은 김유정 소설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1930년대 우리 민족의 궁핍상이다.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궁한 살림에 쪼들리어 악에 받친 남편의 입장에

54) 김윤정, 앞의 글, 56면

서 볼 때 계집 좋다는 것이 마음대로 욕하고, 차고, 치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맞아주는 고마운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극도의 가난으로 인한 인간 관계의 파괴적 실상과 한 편은 두들겨 패고 한 편은 두들겨 맞는 그들의 본능에 가까운 삶의 양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비참한 하층민의 밑바닥 삶의 모습으로, 작가는 1930년대 우리 민족의 궁핍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2. 작품의 형상화

1) 바보형 인물의 설정

김유정 소설의 특징은 인물의 설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지적 열등성이 두드러진 어리석고 우직한 인물들이다. 이들 인물은 현실 파악에서 분석적이지 못하고, 역사적 전망을 가질 만큼 지성적이지 못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불건전하며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결정적 결함을 지닌 덜 떨어진 인물들을 그의 많은 작품에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의도는 무엇일까?

한만수[55]는 '문학에서 바보란 지배적 질서를 낯설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인간 사회를 꿈 꿀 수 있게 해 주는 인물이며, 또 그런 뜻이 약한 경우라도 잘못된 사회를 그저 즉자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들 자신의 책임 몫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학에서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유도해 내는 문학의 기법으로서 효과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

55) 한만수, 「한국 서사문학의 바보 인물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68면

'바보'의 일반적인 개념은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 혹은 '발생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충동과 불합리한 본능을 가진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인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바보'란 '인식 능력에 있어서 보통의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인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그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욕망은 자신의 뜻대로 순탄하게 실현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욕망이 좌절되기도 한다. 이 욕망의 좌절은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우선, 인식 능력에 있어 남보다 현저히 뒤져 있기 때문에 욕망 달성에 실패하는 인물은 인식적인 문제를 지닌 바보형 인물이고, 인식 능력과는 무관한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 부족으로 자신의 욕망 달성에 실패하는 인물은 상황적인 문제를 지닌 바보형 인물이고, 그 둘 다의 문제를 지닌 바보는 그의 인식 능력과 상황적 조건이 같이 작용하여 욕망 달성에 실패하는 인물이다.[56]

그러면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바보형 인물들의 못나고 어리석은 행동거지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金따는 콩밧」에서 두드러진 바보형 인물은 주인공 '영식'이다. 농사를 짓고 사는 농사꾼 '영식'이 농사를 포기하고 밭에서 금을 캐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이미 상식적인 판단을 벗어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영식'은 약이 올라 죽을 둥 살 둥 눈이 뒤집혀 곡괭이질을 하다가 살기 띤 시선으로 수재를 노려본다. 이놈이 풍치는 바람에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영식'에게 어느 날 수재가 접근하여 '이 밭에 금이 묻혔으니 파

56) 김형민, 「김유정 소설의 서술상황론적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2, 8면

보자.'고 꾀송거렸고, 몇 차례 거절을 했으나 아내의 부추김도 있고 하여 선뜻 응낙을 했던 것인데, 금은커녕 동네 노인들의 악담 속에 속만 타들어 가고 있던 판이었다.

저녁도 아니 먹고 드러누운 영식은 산제(祭)를 지내기 위해 아내에게 쌀을 꿔 오도록 한다. 닭이 두 홰를 치고 나자 떡시루를 이고 콩밭으로 향한 영식은 밭 가운데에 시루를 놓고 산신께 축원을 한다. 아내는 그 꼴을 바라보며 독이 뾰록같이 오른다. '콩밭에서 금을 따는 숙맥도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아내에게 영식은 발길질을 한다.

조바심이 난 수재가 '터졌네, 터졌어, 금줄 잡았어.' 하고 황토 흙을 보이며 외친다. 영식의 아내가 너무 기뻐서 고래등같은 집을 연상할 때, 수재는 '오늘밤에 꼭 달아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작가 김유정은 '이리와 봐. 이게 금이래.'하고 말하며 아내를 부르는 영식과 '코다리에 고래등같은 집까지 연상'하는 아내의 심정을 '오늘밤에는 꼭 정녕코 달아나리라,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뻐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고 여기는 수재의 심정과 대비시켜 장면을 극대화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비는 영식 부부에게 이제 금을 캐려는 욕망이 완벽하게 좌절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에도 금이 나왔는지 아닌지 진상 파악도 못한 채 희희낙락하는 영식 부부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만무방」에서 두드러진 바보형 인물은 응칠과 응오이다. 고생하여 농사를 짓고도 여러 가지 세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빈 지게뿐, 다시 빚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당대의 농촌 현실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런 고생에서 일찌감치 해방되어 떠돌아다니거나 도둑질로 소일하

는 응칠이의 삶이 더 나아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응칠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우쭐거리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응칠이는 아우의 동네에 다니러 와서도 타관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며, 도리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대접까지 해 주자 어느덧 자신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생각에 젖어버리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김유정 특유의 아이러니 수법이 빛을 발한다. 모자란 자의 잘난 체하는 행동이 그것이다.

반면에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며 나이 서른 하나로 무던히 철났다고 동네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만 있을 따름이고, 이런 처지에 있는 응오는 아내마저 병들어 눕는 지경에 이르자 삶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그가 택한 삶의 방식은 밤중에 몰래 자기 논의 벼를 자기가 훔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형인 응칠이가 현장을 덮치게 되자, 응오는 형 응칠에게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라면서 항변을 하게 된다. 이렇듯 작품「만무방」에서 응칠과 응오는 욕망 추구의 방법에서부터 오류를 저지르는 바보형 인물로 나오고 있다.

셋째,「봄·봄」에 나타난 두드러진 바보형 인물은 화자인 '나'이다. '나'는 봉필의 딸인 점순과의 혼인 약속 아래, 봉필의 집에 새경 없는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 '나'의 욕망은 점순과의 혼인이다. 그러나 봉필의 목적은 혼인을 미끼로 하여 무보수로 '나'를 부려먹자는 속셈이다. 그런데 앞으로 적어도 4년 이상은 더 일을 부려먹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키를 핑계로 자꾸만 혼인을 미적미적 미루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나'가 사태를 파악하며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웃음을 자아낸다.

지금 '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나'는 혼인이 지연되는 이유가 오직 점순의 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라고 생각하며,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 보았다.'고 했다. 이렇게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나'는 친구인 뭉태가 자기에게 사건의 진상을 일러주는 데도 '뭉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릉거린다.'고 하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

그리고 점순이가 '나'에게 "혼인을 미루는 아버지의 수염을 낚아채지."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정말로 봉필의 수염을 잡아당겨 혼인 허락을 얻어내려는 방법은 정상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봉필의 입에서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자 봉필의 아내와 점순이가 달려나와 싸움을 뜯어말리면서 마구 우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때 '나'는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들련지 몰라도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겠지."라고 여긴다. '나'는 점순의 아버지인 봉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점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빠진 존재로 비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소낙비」에 나타난 두드러진 바보형 인물은 주인공 '춘호'와 '춘호 처'이다. 그들의 욕망은 농촌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서울에 가서 편안하게 살 방도를 차린다는 것인데,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취하는 방식은 아내의 매음이다. 아내의 매음으로 한 밑천 잡아 노름을 하고, 그 노름을 통해 서울 갈 경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의 안락한 삶

은 다소 불투명하긴 하나 그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내일 밤 이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달려가서 있는 돈이란 돈은 깡그리 따올 생각에 꿈이 부풀어 있다. 이런 일확천금에의 꿈은 노름꾼의 생리로 비추어볼 때 불확실한 가능성밖에 놓여 있지 않은데, '춘호'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자기가 돈을 따 놓은 당상으로 착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춘호 처'의 욕망은 그녀대로 도라지 더덕을 캐며 하루벌이를 해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 주사'와 배가 맞아 호강하는 '쇠돌어멈'을 부러워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지난봄에 '쇠돌어멈'처럼 호강할 수 있었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 버렸음을 후회하면서 매춘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연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용감하게 매음을 시도한다. 그리고 돈 이 원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서울에 가서 살 계획을 이야기하며 불시로 화목한 밤을 보낸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안락한 삶은 다소 불투명하기는 하나 그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욕망은 아니다. 왜냐하면 춘호가 아내를 보고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잠을 잘 자주면 몇 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 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으로 보아 '춘호'가 서울에 가서도 아내에게 매춘 행위를 시켜 삶을 꾸려가겠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상의 일이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상경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춘호'는 '춘호 처'에게 상경 이후의 주의 사항을 장황하게 언급하며 불가능한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희희낙락해 하고 있다.

정태규는 그의 논저에서 '김유정 소설의 인물들은 일정한 공간에 뿌리내리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깥으로 떠나려 하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서 목적지에 간다고 해도 현재 공간에서의 모습밖에는 생활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을 준다.'[57]고 얘기하고 있다.

다섯째, 「가을」에서는 화자인 '나'와 복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루어지는데 여기서 두드러진 바보형 인물은 '나'이다. 복만이는 자기 처를 소장수에게 팔아 넘기면서, '나'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소장수가 복만의 처를 데리고 간 뒤에 문제가 발생한다. 복만의 처가 소장수에게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소장수에게 복만과 짜고 복만의 처를 빼 돌렸다는 오해를 받고 곤경에 처하게 되면서 그 곤경에서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주된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의 전말에 의하면 '나'에게 계약서를 써 달라고 부탁한 복만이 자기의 계략에 '나'를 이용한 셈이다. 그러니 응당 '나'쪽에서 복만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원망이 나와야겠지만 '나'는 복만에 대한 원망의 감정보다는 단지 억울하게 소장수에게 오해를 받게 된 자기의 처지에 대한 푸념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따름이다.

그는 애초부터 복만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했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복만의 의도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어리석은 바보형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안해」에 나타난 바보형 인물은 화자인 '나'이다. '나'는 자기

57) 정태규, 「이효석과 김유정 소설의 공간 인식에 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9, 51면, 56면

아내를 들병이로 보내어 돈을 벌려고 한다. '나'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경제적 풍요이다. 그런데 아내가 들병이 일을 배운답시고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을 목도한 '나'는 아내를 들병이로 보낼 계획을 포기한다. 들병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의외의 결과를 목도했다는 점에서 바보스러움이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나'가 그 계획을 철회한 뒤에 다시 설정한 삶의 목표에서 발생한다.

'나'는 아내를 보고 '구구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 성히 있다가 연해 자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도 말고 굴때 같은 아들로만 한 열 다섯이면 족하지. 한 놈이 일 년에 벼 열 섬씩만 번다면 열 다섯 섬이니까 일백 오십 섬. 한 섬에 더도 말고 십 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일천 오백 원이지.' 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아내나 자식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식의 사고는 정상적인 사람의 인식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나'가 예상하는 결과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나' 혼자서만 희미한 착각에 빠져 스스로의 계산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이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김유정 작품의 등장 인물들이 겪고 있는 삶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허용하지 않는 막다른 삶이다. 그 삶은 일제 치하의 농촌 수탈과 농민의 궁핍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삶이지만 그 원인 규명이나 삶에 대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유정 작품에 등장하는 바보형 인물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사태를 마치 농담을 하듯이 전하고 있다.[58]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는 화자의 어조가 이렇게 태평스러운 모습을 띨 때, 얼핏 화자 자신이 겪고 있는 농촌의 삶의 모습은 무화되어 버릴 염려가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반어적 기법이다.

58)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324면

작품에 드러나듯이 인물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독자에게 하게 함으로써 인물이 처하고 있는 삶의 한계성에 더욱 주목하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연민 의식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제 김유정 작품의 형상화 과정에 있어 두드러진 반어적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반어적 기법

김유정 소설의 서술 구조상 주목해야 할 특징 중의 하나가 반어적 구조이다. 반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진의(眞意)와 반대되는 표현을 말하는데, 표면으로 칭찬과 동의를 가장하면서 오히려 비난이나 부정의 뜻을 신랄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지적인 날카로움을 갖는 점에서 기지(機知)에 통하고, 간접적인 비난의 뜻을 암시하는 점에서는 풍자와 통하며, 표리(表裏)의 차질에서 생기는 유머까지를 포함한다.

인간은 언제나 일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아실현과 더 나은 삶의 설계를 위하여 또 다른 욕망을 가지게 된다. 현대 소설은 이 같은 인간들의 의식의 변화나 행동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작중 인물이 자아 실현을 위해 움직이되, 그 동기나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59]

첫째, 불만족한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에 이르는 이야기(회복형), 둘째, 이상세계에 대한 꿈을 갖고 부단히 움직이는 이야기(낭만형), 셋째, 만족한 상태에서 불만족한 상태로 떨어지는 이야기(상실형), 넷째, 현실세계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이야기(시련형)가 그것이다.

이 같은 네 유형의 이야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의 삶과 일치시켜 볼 때 보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노드롭 프라이가 제시한 네 가지 미토스(mythos)와 일치시켜 볼 수

59) 이광풍,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31~32면

있다. 회복형은 봄의 미토스(희극), 낭만형은 여름의 미토스(로만스), 상실형은 가을의 미토스(비극), 시련형은 겨울의 미토스(아이러니, 풍자)이다.

즉, 희극형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비극형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로망스형은 일상의 삶을 벗어나 꿈과 이상을 찾으려는 것이고, 아이러니형은 행복과 만족을 찾아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불행해지는 형으로 이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러니의 기초는 인간이, 이 우주의 기원과 목적, 죽음의 확실성,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소멸, 미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이성과 정서와 본능, 자유의지와 결정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사회와 개인,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인문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등의 충돌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직면하는, 분명히 근본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속에 존재하는 것인데 소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종류의 주인공들을 구별지으면서 노드롭 프라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들보다도 힘이나 지성에 있어서 열등해서 그 때문에 우리들이 주인공들의 구속되고 좌절되고 또는 부조리한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감을 갖게 한다면 그 주인공은 아이러니의 양상에 속하는 것이다.**[60]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힘에 있어서나 지성에 있어서나 뛰어나지 못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평균적인 인물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고통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며 현실 속에서 희화화되고 있음은 그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모순에 근거하고 있음을 김유정 작품에서는 반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반어는 당대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객관적으

---

60) D.C.Muecke(문상득 역), 『*Irony*』, 서울대출판부, 1986, 46면

로 포착하여 그것을 작품에 수용하려는 문학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유정은 본인이 살아가는 당대 현실을 부조리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부조리한 시대 현실과 맞선다는 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맞섬조차 포기한다는 것은 더욱 더 절망적이라는 인식의 소산[61]으로써 작품 속에 당대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써 아이러니라는 기제를 선택하여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소설에서 제도와 부조리의 공조현상은 드물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작중 인물이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은 일제 식민지 제도와 관련된다. 식민지 제도는 산미증산계획이니 농촌진흥회니 하는 명분으로 수탈의 실상을 호도하고 부조리를 심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농사는 열심히 지어도 남는 것이 없는 현실, 그 자체가 부조리이며 자기 논의 벼를 자신이 훔쳐야 하는 반어적 세계가 제도로서 고착된다.[62]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결과가 풍년과 수확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농군의 살림살이가 곧 목매기가 되는 상황이 바로 식민지적 수탈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당대 제도에 대한 이런 인식의 결과, 작중 인물들은 제도로부터의 일탈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우며 제도적 폭력을 나름대로의 위반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 이런 점에서 김유정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맞물려 당대의 현실과 민족의 상황 인식에 투철한 의식을 가진 작가였다. 그래서 궁핍으로 파멸되어 가는 농촌과 도시 민중의 삶을 반어적 구조를 통하여 왜곡된 사회 현실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하였다.

김유정 소설의 인물들은 항상 자기가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서 탈출을

61) 하창수, 『맞서지 않는 길』, 전망, 2002, 191면
62) 이경, 『한국근대소설의 근대성 수용양식』, 태학사, 1999, 98~99면

꿈꾼다. 이러한 꿈꾸기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 「만무방」은 당시 소작인들의 궁핍상을 반어적 구조를 통해 제시해 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반어의 형식은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전력을 지닌 방어 기제로써의 구실을 하고 있다.

김유정 소설에서 1930년대 현실 상황을 기대와 반전이라는 반어적 양상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기법이 가장 명징하게 나타나는 작품 「만무방」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깊은 산골 어느 가을날, 전과 사범자요 만무방인 응칠이는 송이 파적이나 하고 있다 남의 닭을 잡아먹는다. 숲속을 빠져 나온 응칠은 성팔이를 만나 동생 응오네의 논의 벼가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팔이를 의심해 본다.

응칠이는 오 년 전에 처자식이 있었던 성실한 농군이었으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야반도주(夜半逃走)하여 동생 응오를 찾아왔다. 성실한 청년인 응오가 벼를 베지 않고 있다가 닷 말쯤 도적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응칠의 동생 응오는 병을 앓아 반쯤 송장이 된 아내에게 먹일 약을 달이기도 하고, 십오 원을 들이어 산 치성을 올리려고 하나 응칠은 치성들여 나을 병이 아니라며 진작에 계집 다 버리고 날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책망하자 응오는 몸을 홱 돌리어 집으로 들어간다.

응칠은 오늘밤에는 도둑을 잡은 후 이 곳을 뜨기로 결심한다. 도둑을 잡으러 산고랑 길을 오르는데, 바위 굴 속에서 노름판이 벌어졌기에 여기에 끼였다가 서낭당 앞 돌에 앉아 덜덜 떨며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한다. 이윽고 복면을 한 도적이 나타나자 응칠은 몽둥이로 허리께를 내리쳐서 복면을 벗긴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응오임을 알고 우두망찰하게 된다.

눈물을 적시며 응칠은 황소를 훔치자고 동생을 달랬지만, 부질없다는 듯 형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동생을 보고 응칠은 대뜸 몽둥이질을 하여 쓰러뜨린 뒤 응오를 등에 업고 내려온다.

「만무방」은 응칠과 응오 형제가 궁핍한 삶 가운데 어떻게 변해 가는가

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전과 4범의 건달인 형 응칠은 절도에 능한 노름꾼이며, 사회적 윤리의 기준에 위배되는 '만무방'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과 절도로 일확천금의 허황한 꿈을 꾸는 인물임에 비해, 동생 응오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소작농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반어적 상황에 대해 응칠과 응오 두 측면에서 파악해 보자.

① 주인공 응칠의 상황

> 그도 오년전에는 사랑하는 안해가 잇섯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잇섯고, 그때야 이럴 하로라도 집을 떠리져 보앗스랴. 밤마다 안해와 마주안즈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늘이볼가 불이볼까, 애간장을 태이며 가튼 궁리를 되하고 되하엿다. 마는 별 뾰족한 수는 업섯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것가튼데 알고보면 남는건 겨우 남의 빗뿐. 이러다가는 걸말엔 봉변을 면치못할것이다. 하루는 밤이 기퍼서 코를 골며 자는 안해를 깨웟다. 박게 나아가 우리의 세간이 멋 개나 되는지 세여 보라 하엿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갈아 붓에 찍어들엇다. 벽을 발른 신문지는 누러캐 꺼렷다. 그우에다가 안해가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나려 적엇다.
>
> 독이 세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 로부터 밥사발, 젓가락집이 석 단까지 그 담에는 제가 빗을 엇어온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쪽적어 노앗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알에다 달아노코 그엽으로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박게 업노라. 나는 오십사원을 갑흘길이업스매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싸울게 아니갯고 서루 의론하여 이굴치안토록 분배하야 가기 바라노라 하는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닷고 울타리 맛구멍으로 새나구 빠저왓다.
>
>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든 첫날이엇다.

응칠이 농토를 버리고 떠돌게 되는 정황이 해학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학의 이면에는 너무나 어둡고 참담한 현실이 깔려 있다. 응칠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농민이 되었다. 또 그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 수 없다. 그 보다는 서로 갈리어 제 맘대로 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가뜬하리라.'는 판단에서 아내와도 헤어진다.

이리하여 응칠이는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전과 사범이라는 반사회적인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주인공 응칠이를 중심으로 농촌 사회의 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 폭력성을 세밀하게 그려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 소작농이 처해있던 현실의 절박한 상황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문제는 이 작품에서 응칠이의 장한 행위(도적질)가 오히려 농민들로부터 선망(羨望)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왜곡된 사회에 대한 냉소주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친 첫 날이었다.'라는 반어적 문구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1930년대와 같은 모순된 사회현상 속에서 반사회적인 행동 양식이야말로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환기한다.

결국 김유정은 식민지 농업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신분의 전락을 경험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곤한 현실적 상황을 아이러니의 양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모순에 찬 현실에 항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부주인공 응오의 상황

한해동안 애를 조리며 훗자식 모양으로 알뜰이 가꾸든 그 벼를 거더드림은 기쁨에 틀림없섯다. 꼭두새벽부터 엣, 엣,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보니 남는 것은 둥줄기를흐르는 식은땀이 잇슬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니보다 끗업시 부끄러웟다. 가치 털어주든 동무들이 뻔히 보고섯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건 진정 열쩍기 짝이업는 노릇이엇다. 참다참다 응오는눈에 눈물이 흘

렀는 것이다.

가뜩한데 업치고 덥치더라고 올에는 고나마 흉작이엇다. 샛마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fut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게 남지안흠은 물론이요 빗도 다 못가릴 모양. 에라 벌이먹을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마던맛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지두지 안흘수업다. 벼를 거덧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오로 대표되는 1930년대 농민 계층의 현실이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농사꾼이 벼를 베지 않고 논에 그대로 팽개쳐 둔다. 벼를 수확해 봤자 남는 것은 빚뿐이라는 절망감으로 벼 수확을 포기한다. 응오는 삼 년 동안 머슴을 살아 데리고 온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농사를 지었건만 가을에 추수로 걷어들일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자신이 애써 가꾼 벼를 자기가 오히려 도직질해야 하는 눈물겨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응오네 논의 벼가 도둑맞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의외로 범인은 동생인 응오였다는 데에 반어적 상황이 발생한다. 일 년 농사를 짓고도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뿐이라는 인식은 당시 소작인들의 심중과 여실히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응오와 같은 모범 농군이 자신이 땀흘려 지은 농사를 자기의 손으로 도둑질해야 한다는 모순된 현실에 있다. 궁핍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착취당하여 유랑 농민이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모범적인 농사꾼마저 반사회적 인물로 몰고 간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基因)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일제의 농업 정책, 식민지 정책이 자작농을 소작농으로 몰락시켰으며, 유랑농민과 유랑화전민, 그리고 도시의 실업자와 거지 등을 만들던 1930년대의 농촌 현실을 극명하게 그려 놓았다. 응칠의 삶은 식민치하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게 된 상실의 역사적 상황을 말하며, 이는 민족 전체의 삶의 양식으로 확대된다. 그의 삶은 식민치하에서 식민지 착취 기관이었던 동양척식회사[63]에 의한 농토의 수탈과 이농, 이민 현상, 노동의 착취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한계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농민으로서의 삶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응칠과 응오의 삶의 여정은 한 개인의 비극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일제 식민지 초기의 농업 정책이 계획한 정책으로 고통받고 희생된 한국 농민들의 참상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결국 모범적이고 성실한 농군을 반사회적인 의식으로 몰고 간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곧 식민지 농업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현실 개선의 의지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된다.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반(反)사회적인 수단 즉, 도박, 절도 등에 의해 현실의 극복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만다. 작가가 제시한 인물들의 행위가 타락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음은 타락한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여진다.

---

63) 신용하, 『조선토지 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18~23면에 의하면 1908년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토지약탈을 위한 정책시행과 농업회사의 설립 등으로 한국 농촌의 경제, 사회 구조를 뒤흔들어 놓았다. 1년 6개월 사이에 약 3만 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일본 농민들의 국내 이주가 급증하여 이들 또한 지주로서 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행세하게 되었다. 1910년부터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을 보면 한국 농민들은 왜 제도적으로 궁핍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알 수 있다.

Ⅳ. 지도의 실제

-「만무방」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문학 교육

1. 작품 개관

이 작품의 제목이 된 '만무방'이란 '막되어 먹은 사람'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응칠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만무방 아닌 사람이 없다. 김유정이 한국 농촌의 실상과 풍속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보면, 1930년대 한국 농촌의 민초들은 결국 만무방에 다름없는 자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도둑이 아니면 노름꾼이다. 도둑질로 평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응칠이나, 착하기 그지없는 아우 응오도 결국 도둑질을 하고 말았다는 것에서 둘 다 도둑이다. 그리고 응칠이는 뛰어난 노름꾼이다. 응칠이 외에도 마을의 사내들은 움막에서 노름을 즐긴다. 끼니가 없으면서도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들이 한심하기 조차 한데, 게다가 상투를 튼 늙은이도 노름판에 합석하는 데서 당대 농촌의 모습은 매우 왜곡된 것으로 그려진다.

그 다음 김유정 작품의 주요 모티프의 하나가 아내 팔기인데, 이는 이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호란 인물은 아내를 판 돈으로 노름을 하고 있다. 아내보다 노름이 중하다는 것은, 정상 생활에서 이탈된 삶을 사는 가장 표본적인 경우이다. 노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일상적 삶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당대의 농촌 현실에 대한 탐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꾸려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때 허황된 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겨우 추수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이 땀과 눈물뿐이라면 구태여 농사일에 열중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고생하여 농사를 짓고도 여러 가지 세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빚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당대의 농촌 현실이었음을 생각할 때, 작중 인물들의 일탈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고생에서 일찌감치 해방되어 떠돌아다니거나 도둑질로 소일하는 응칠이가 현명한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정상인의 모습은 아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우쭐거리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완력이나 노름 솜씨, 또는 도둑질과 같은 반윤리적인 것으로 도둑 관념이 애초부터 배제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응칠 자신의 판단만은 아니고 그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도 부각되고 있다.

응칠이는 아우의 동네에 다니러 와서도 결코 타관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대접을 해 주자, 응칠은 어느덧 자신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김유정 특유의 아이러니 수법이 빛을 발한다. 모자란 자의 잘난 체하는 행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의 주체인 등장 인물들이 밉지 않게 느껴지는 점이 바로 김유정 문학의 특성이다. 이는 휴머니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김유정 문학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웃음의 정신은 서두에서 응칠이가 송이 파적을 나와 여유롭게 산을 거니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작품의 서두에는 응칠이가 송이 파적을 나와 산길을 걸으며 바라본 정경과 기분이 잘 드러나 있다.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응칠의 관점에서 서술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 응칠이가 도대체 도둑

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작가가 이렇게 여유로운 광경을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응칠이의 생활상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인데, 이 여유와 즐거움은 죽을 고생을 하며 일에 매달려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 이것은 대다수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극대화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사실 응칠이는 부칠 땅 하나 없는 비렁뱅이이다. 오라는 데도 없고 따로 갈 곳도 없는 처지다. 그런 응칠이가 정상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데 그는 차라리 유유자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아이러니이며 김유정 소설의 바탕이 아이러니임은 이 작품에서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한 마디로 도둑질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응칠이는 도둑질로 생활을 하는 만무방이며, 각지를 떠돌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우를 찾아온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그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심의 표적이 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때 벼를 도둑 맞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응오가 소작을 하는 응고개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한창 바쁜 시절에 그 논께로 갈 사람이 없는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그 의심은 당연히 자기에게 올 것임을 예견한 차에 성팔이란 놈이 와서 벼 없어진 걸 아느냐고 물을 때, 응칠이로서는 성팔이가 얼레발을 치고 덤비는 수작이라고 단정하고 역공을 가한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마당에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마을에 소문만 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봉욕을 당할 것임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응칠은 성팔을 달래 일단 소문을 막아 놓고 증거를 잡자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밤새워 도둑을 잡기 위해 기다린다. 그러다가 도둑을 잡고 보니 아우인 아이러니, 이 망연한 상황을 제시하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극화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듯 자신의 벼를 훔쳐야 하는 상황이 식민지 농민의 비애

였다. 벼를 타작해 보았자 모두 빼앗기고 나면, 실상 자신이 짓고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타작을 하지 않고 그것을 훔쳐야 하는 이 엄청난 모순이 당대의 삶의 진실이었던 것이다. 만무방의 길을 걸어온 응칠이가 동생 응오를 업고 한숨을 쉬며 어청어청 고개를 내려오는 장면에서는 비애감에 젖고도 남는다.

이 작품은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노름과 도둑질로 사는 응칠이도 처자식과 헤어져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며, 밤마다 움막에 모여 노름을 하는 사람들도 생활에 절망한 사람들이다. 병든 아내를 구환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다 급기야 자신의 벼를 훔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동생 응오도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생활에 배신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일탈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식민지 시대의 궁핍 때문이었다.

2. 「만무방 」 수업 연구 지도안64)

Ⅰ. 단원명

Ⅷ. 문학 문화의 특질과 인접 영역

1. 문학 문화의 개념과 특성

(3) 만무방

Ⅱ. 단원의 성격

언어는 한 민족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언어에는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생활 문화 등이 배어 있게 마련이다. 문학은 이와 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가치나 주제 의식뿐만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의 관습과 가치관, 생활 경험 등이 자연스레 표현된다. 또, 독자들은 그것을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문학은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여정은 물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 등의 문제를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형상화해 낸 언어 예술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과거 선조들의 삶의 문화와 이를 관장하는 예술적 가치 등이 잘 드러난 문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바탕에 숨쉬고 있는 본질을 찾아 현재의 문학 문화에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이다.

Ⅲ. 단원의 교수-학습 목표

(1) 문학은 특정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문학의 형성과 소통에 적용하는 여러 관습들을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 다양한 매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 작품의 수용 현실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지닐 수 있다.

---

64)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하), (주)천재교육, 2003, 274~292면.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은 보통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게 된다.

Ⅳ. 단원의 교수-학습 계획

소단원		차시	교수-학습 내용
1. 문학 문화의 개념과 특성	(1) 고풍 의상	1	· 우리 민족의 정서가 시적 화자의 시선을 통하여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안다.
	(2) 시조 두 수와 절명시	2	· 어려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화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 속에 드러난 미의식이 무엇인지 안다.
	(3) 만무방	3	· 이 작품에 나타난 1930년대 농촌의 실상을 파악한다.
	(4) 무녀도	4	· 무속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숙명론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안다.
2. 문학과 인접 영역	(1) 하숙	5	· 작품에 반영된 사회 양상을 파악해 보고, 사회에 대한 화자의 의식을 유추해 본다.
	(2) 금강에 살으리랏다	6	· 문학이 인접 예술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3) 그림과 시	7	· 문학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영역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문학과 다른 예술이 어떻게 넘나드는지를 확인해 본다.

Ⅴ. 지도상의 유의점

(1) 교사 위주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업 안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수업할 내용을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치밀한 준비 속에 알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Ⅶ-2-(3) 「운수 좋은 날」과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한다.

(4) 학습 활동을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으로 나누어 지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Ⅵ.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명	Ⅷ-1-(3) 만무방	차시	3/7
본시 학습 목표	1. 이 작품에 나타난 1930년대 농촌의 실상을 파악한다. 2. 이 작품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기법을 이해한다. 3. 이 작품의 감상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교수-학습 준비물	교사	교과서, 교수-학습 지도안, OHP, 캠코더 등	
	학생	전체(교과서, 학습지, 필기도구) 발표조(OHP 자료, 캠코더, 카세트, 그림, 각종 소품)	

단계 (시간)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수업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5분)	* 전 시 학습 확인 * 학 습 목표 제시	* 어려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화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다. *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점검한다.	* 빔 프로젝트(스크린에 자료 제시)
전개 (40분)	* 문학에 나타난 현실의 의미 알기	*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이란 그 당대만의 특수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서 늘 부딪히게 되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일 수도 있다.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과는 달라도 지금의 독자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인간 보편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문학 작품은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이 지닌 의미를 제시하고, 독자는 이를 통해 역사적 현실을 깨닫게 된다.	* 빔 프로젝트(스크린에 자료 제시) * 교 사 는 학 생 들 의 자 발 적 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 발 표 학습	* 발표조는 조사해 온 학습 내용을 취합하여,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전개 (40분)	* 문학에 나타난 현실의 의미 알기	**1. '만무방'의 의미와 제목을 '만무방'이라 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부록 72쪽)** ▲ 만 : 무방 [명사] outrageous people 예의와 염치 없이 막되어 먹은 사람 ▲ outrageous (1) 포학한. 잔인무도한 (2) 무법의. 부당한. 괘씸한. 지나친. 모욕적인 (3) 엉뚱한. 괴이한. 엄청난 ▲ '만무방'이란 원래 '예의와 염치없이 막되먹은 사람'이란 의미인데, 이 작품에서는 응칠이의 부랑(浮浪)하는 삶을 빗대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부채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박과 절도를 일삼는 응칠이나, 모범적 농민이었지만 자기 논의 벼를 훔치고 마는 응오 모두 이 시대의 '만무방'인 것이다. 이는 1930년대 수탈 당하던 농촌 사회의 우리 농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빔 프로젝트(스크린에 자료 제시) *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 발표 학습	**2. 작가 김유정에 대해 조사한 바를 발표해 보자.(부록 73쪽)** ▲ 김유정(金裕貞, 1908~1937) 강원도 출생의 소설가. 1929년 휘문보고를 졸업하고 연희 전문 문과 중퇴. 1932년 고향인 실레 마을에 금병의숙을 열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1935년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조선중앙일보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이후 단 몇 년 사이에 「금따는 콩밭」, 「총각과 맹꽁이」, 「생의 반려」 등 30여 편의 주옥같은 단편 소설을 발표. 심한 폐결핵으로 요절, 춘천 근처에 그를 기념하는 문인비가 세워져 있다. (국어국문학사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편, 신구문학사, 1975, 160-161쪽)	* 발표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전개 (40분)	* 문학에 나타난 현실의 의미 알기 * 발표 학습	**3. 김유정의 문학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자.(부록 73쪽)** ▲ 이것이 김유정의 문학 세계 ① 원시적 생명력(있는 그대로의 삶) ② 해학과 아이러니 ③ 활력의 언어 표현 **4. 등장 인물을 소개해 보자.(부록 74쪽)** ▲ (1) 응칠 : 평범하게 살던 농민이었으나, 빚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만무방으로 전락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며 닥치는 대로 생활하는 인물 (2) 응오 : 진실하고 모범적인 농민이나, 자신이 가꾼 벼를 자신이 도둑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함 (3) 성팔, 기호, 용구, 머슴, 상투쟁이 :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농촌을 떠나려는 소작농 **5. 작품에 나타난 반어적 기법에 대해 알아보자.(부록 74쪽)** ▲ 응칠과 응오 형제가 궁핍한 삶 가운데 상반된 길을 걸어온 이야기.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반사회적 수단인 도박, 절도 등에 의해 현실의 극복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좌절됨. '내 걸 내가 훔치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통해 당시 농촌의 피폐상을 선명하게 드러냄. 전락의 과정은 인물의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에 기인. 당시 농민들의 가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노력과 성실성이 아니라 도박과 같은 요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메시지를 담음.(반어적 기법) ▲ 응칠 : 도둑놈의 여유로움을 보임 ▲ 응오 : 제 것을 도둑질해야 하는 상황	* 빔 프로젝트(스크린에 자료 제시) *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 발표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전개 (40분)	* 문학에 나타난 현실의 의미 알기	**6.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현실 인식에 대해 알아보자.(부록 75쪽)** ▲ (1) 김유정은 1930년대 현실의 구조를 인식하고 왜곡된 사회 현실의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 (2) 응칠의 행위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왜곡된 사회에 냉소적인 표현임 (3) 결국 「만무방」은 사회의 윤리에 위배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뒤틀린 사회가 빚어낸 인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반어적, 냉소적인 말	* 빔 프로젝트(스크린에 자료 제시)
	* 발표 학습	**7.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부록 76쪽)** ▲ 「동백꽃」과 「봄·봄」은 청춘 남녀의 목가적인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데 반해, 「만무방」은 식민지하 농촌 현실의 피폐상을 고발하고 있다. 작가는 1930년대 식민지 농촌 현실을 반어적으로 파악했으며, 그것은 김유정에게 있어 왜곡된 사회 현실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유정 소설에서 주로 드러나는 현상은 농촌의 궁핍화 현상이다. 농촌의 궁핍은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급기야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농촌을 떠나 도회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8. 핵심 정리(부록 76쪽) ▲ (1) 종류 : 단편 소설, 농촌 소설 (2) 배경 : 1930년대 강원도 산골 (3) 성격 : 사실적, 향토적, 고발적, 반어적 (4) 시점 :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5) 특징 : 반전의 기법 (6) 주제 :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상황의 가혹함과 피해	* 발표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전개 (40분)	* 문학에 나타난 현실의 의미 알기	**9. 작품의 주요 장면을 연극 형태로 재현해 보고, 구성 단계를 정리해 보자.(부록 77~81쪽)** ▲ 주요 장면을 연극을 통해 재현해 본다.(77~79쪽) (1) 장면1(응칠 등장) : 산 속에서 어슬렁거리며 송이 파적을 하고 있는 응칠. 임자 없는 닭을 보자 잡아먹는 모습 재현 (2) 장면2(응칠과 아내 등장) : 5년 전 아내와 구걸하러 다니는 모습과 헤어질 때 상황 재현 (3) 장면3(응오, 악덕 지주, 응오 아내 등장) : 응오가 지주에게 시달리는 모습과 아내의 병든 모습 재현 (4) 장면4(응칠과 응오 등장) :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해 있다가 잡고 보니 동생인 반어적 상황 재현	* 그림이나 연극, 뉴스, 인터뷰 형식으로 제시-연극대본, 카세트 및 각종 소품 준비
	* 발표 학습	▲ 구성 단계(79쪽) (1) 발단 : 응칠이는 한가롭게 송이 파적을 하며, 송이로 요기를 하고 닭을 잡아먹음 (2) 전개 : 응오네 벼가 도둑 맞은 사실을 듣고 응오의 집에 들렀다가 살벌해진 현실에 개탄함 (3) 위기 : 그믐밤에 산꼭대기 바위굴에서 노름을 하고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함 (4) 절정 : 도둑을 잡고 보니 동생임을 알고 어이가 없어 우두망찰함 (5) 결말 : 황소를 훔칠 것을 거절하는 동생을 몽둥이질하여 등에 업고 산에서 내려옴	* 발표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작가와의 대담 시간(80쪽) 작가 김유정에게 「만무방」의 창작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김유정 사진 스크린에 띄우기)	*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진행(각종 자료 및 소품 준비)
		▲ 작품의 일 분 논평(81쪽) 문학평론가에게 작품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적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면을 스크린에 띄우기)	

전개 (40분)	* 문학에 나타난 현실의 의미 알기	**10. 작품의 감상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부록 83쪽)** ▲ (1) 응칠과 응오의 아내가 되어 신세를 한탄하는 말로 나타내보자.(83쪽) ① 응칠의 아내 :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한지. 빚만 없으면 어떻게든 살 것 같더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지금도 그 때나 마찬가지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하고 헤어지지나 말 것을. 여자 혼자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 ② 응오의 아내 : "아무리 애써 농사지으며 뭐 하나.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와중에 나까지 아파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 발표 학습	(2) 2003년 절대 빈곤층 증가 현상에 대한 자료 조사와 느낀 점을 발표해 보자.(83쪽) 요즘 「만무방」의 등장 인물들처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현실이 과연 살 만한 세상인가, 그렇지 못한 세상인가 진지하게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발표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정리 (5분)	* 학습 내용 요약, 정리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김유정은 「만무방」을 통해 1930년대 농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반어적 기법으로 주제를 구현해 놓았음을 이해한다.	* 스크린에 제시된 문제를 푼다.
	* 형성 평가	* 평가 내용의 답을 마무리한다.(84쪽, 화면 제시)	
	* 차시 예고	* 전원이 「무녀도」를 읽어 오고, 발표조는 발표 준비를 한다.	* 차분히 경청한다.

「만무방」은 다른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농촌 소설과는 달리 당시 식민지 지주제의 모순점을 잘 파헤치고 있으며, 당시의 소작제도 아래서 지주와 마름의 횡포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는지, 그 횡포 앞에서 소작인의 생활이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이 땅의 궁핍상과 피폐상을 처절한 정도로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은 그 당대만의 특수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서 늘 부딪히게 되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다.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 오늘날과는 달라도 지금의 독자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인간 보편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문학 작품은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며, 그 문제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를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현실 인식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은 추상적인 모호한 작품에 대해서는 모종의 거부감과 함께 작가에 대한 신뢰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유정의 작가적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춘천 실레 마을의 천석꾼의 아들로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난잡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형님 밑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김유정이었기에, 일제 식민지하에서 신음하던 대다수의 우리 민중의 궁핍한 삶을 다루면서 절대 빈곤과 무지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그려내 보여주었고, 반어적 기법으로 식민지 궁핍상을 냉철하게 보여주어 그의 작품 세계를 독특한 미학으로 형상화시키는데 성공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잃고 살아야 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작가는 그 잃은 것을 찾기에 치열한 정신적 대응을 한다. 그것이 작가에게 있어 문학적 대응이다.

거대한 폭력적인 횡포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짓밟힌다고 느낄 때, 혹은 기계화나 도시화가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바꿔 버린다고 느낄 때, 작가는 아직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며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소중한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찾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작가에게 있어 문학이 시대적 산물이며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문학적 추구가 한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작업이라고 본다면, 작가 김유정은 식민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작품 속에 반영함으로써 문학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끈질긴 노력을 보여준 작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1930년대 식민지하 현실을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모색의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의 삶의 궤적에 나타나 있듯이 유정은 가난과 병고에 시달린 삶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생에의 집착과 문학에의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죽기 직전까지 창작에의 강렬한 의욕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독자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V. 결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무수한 삶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현실의 제반 문제점들과 협화음 이는 해결점 모색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문학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삶의 문제점들을 허구적으로 해결하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과는 달라도 지금의 독자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인간 보편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문학 작품은 작가가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이 지닌 의미를 제시하고, 독자들은 이를 통해 역사적 현실을 깨닫게 되는 작품이다.

본고는 제7차 교육 과정까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작품들, 「金따는 콩밧」, 「만무방」, 「봄·봄」, 「소낙비」, 「가을」, 「안해」 등 여섯 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김유정 소설의 현실 인식의 양상과 작품의 형상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현실 인식에 관한 작가 의식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낸 작품「만무방」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을 위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김유정 작품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드러낸 것이었음을 작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김유정 작품의 현실 인식의 양상은 크게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궁핍화 현상과 아내마저 상품화하는 매춘 모티프로 나타나고 있으며, 바보형 인물의 설정과 반어적 기법을 통하여 궁핍으로 파멸되어 가는 왜곡된 사회 현실의 모순을 작품으로 형상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작가 김유정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경제적 수탈을 당한 소작농, 유랑 농민, 노동자, 실업자, 거지, 여급, 매춘부 등 바보스럽거나 밑바닥에서 짓밟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작중 인물로 내세워 맹꽁이나 만무방, 또는 금쟁이, 거지 등의 모습으로 본능적으로 살아남게 만들어 기대와 반전이라는 반어적 기법을 통한 현실 극복의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대가 우리 민족 전체를 더할 나위 없는 질곡 속으로 몰아간 시기였다면 그러한 민족적 질곡을 정면으로 응시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 김유정이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정책의 기만적 성격을 간파하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끊임없이 모색한 작가였다.

여기서 우리는 김유정 문학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그의 작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개인적인 일상 생활 속에 묻혀서 남의 생활이나 집단 생활에 무관심했던 우리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에 빠진 타인의 삶을 소설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깊고 보편적인 인간애의 정신[65]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작가 김유정이 꿈꾸는 욕망은 황폐한 현실 속에서 밑바닥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개선되고 향상되어 사람답게 살게 될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유정이 독자에게 주고 간 작품은 땀과 노력과 눈물과 아픔을 넘어 선 삶 그 자체였고, 생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삶에 대한 집착과 갈구의 결정체였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김유정 소설의 힘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독자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위대한 생명력을 지닌 고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감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문학에 반영된 작가의 삶의 궤

65) 신동욱, 「김유정 소설 연구」, 『1930년대 한국소설연구』, 한샘, 1994, 360면

적 측면에서도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유정의 현실 인식은 그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열게 하였고, 당대의 구조적 모순을 철저하게 파헤침으로써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한국 문학사에 뚜렷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며, 그의 소설이 1930년대 한국 소설사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기본자료>

전신재, 『원본 김유정 전집』, 강출판사, 1997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하), (주)천재교육, 2003

<단행본>

이대규, 「김동인의 단편소설 '붉은 산' 해석」, 『한국현대작가작품론』, 제일문화사, 1990

김수업, 「'봄·봄'의 기법」, 『한국현대작가작품론』, 제일문화사, 1990

김용직, 「반산문적 경향과 토속성-김유정의 소설문체」,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74

이재선, 「희화적 감각과 바보열전-김유정 작품세계의 이면성」,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김상태, 「김유정의 문체」, 『문체의 이론과 해석』, 새문사, 1982

신동욱, 「김유정 소설 연구」, 『1930년대 한국소설연구』, 한샘, 1994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0

김영기,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이 경, 『한국근대소설의 근대성 수용양식』, 태학사, 1999

김봉군 외, 『한국현대작가론, 김유정론』, 민지사, 1984

이낭희, 『0교시 문학시간』, 도서출판나라말, 1999

김현실 외, 『한국 패러디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하창수, 『맞서지 않는 길』, 전망, 2002

——, 『삶의 양식과 소설의 양식』, 지평, 1993

박세현, 『김유정의 소설 세계』, 국학자료원, 1998

이재선/조동일,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사, 1981
신용하, 『조선토지 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이광훈,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주근옥,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 시문학사, 2001
최원식, 「제국주의와 토착자본」,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지음,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시론적 분석』, 새길, 1991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우한용, 「문학교육의 현실대응력에 대한 고찰」,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107~108면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논문 , 기타>

교육부, 『국어과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여는 국어교육』, 2001 여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여는 국어교육』, 2002 가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여는 국어교육』, 2002 겨울호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여는 국어교육』, 2003 봄호
전상국, 「김유정 소설의 언어와 문체」,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서정록, 「한국적 전통에서 본 김유정의 문학」, 『동대논총』 1, 1969
신동욱, 「숭고미와 골계미의 양상」, 『창작과 비평』 22, 1971
정한숙, 「해학의 변이」, 『현대한국작가론』, 고려대 출판부, 1976

전신재, 「김유정 소설의 판소리 수용」, 『강원문화연구』 4, 1884
신동욱, 「김유정고-목가와 현실의 차이」, 『현대문학』, 1969
김병익, 「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 『문학사상』 22, 1974.
윤지관, 「민중의 삶과 시적 리얼리즘-김유정론」, 『세계의 문학』, 1988
김영수, 「김유정의 생애」, 『김유정전집』, 현대문학, 1968
류인순, 『김유정문학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88
오세영, 「근대시의 형성과 그 시론, 한국현대시론사」, 『한국의 현대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2
전봉관, 「1930년대 금광 풍경과 '황금광 시대'의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7, 1999)
김윤식/김우종,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96
전배석, 「김유정의 잃어버린 작품과 왜곡된 기록」,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한만수, 「한국서사문학의 바보인물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박정규, 「김유정 소설의 시간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윤정, 「김유정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최재창, 「김유정 소설의 현실 수용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혜순, 「김유정 소설 연구, 창작방법과 세계관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강심호, 「김유정 문학의 위반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윤호, 「김유정 소설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박준일, 「김유정 소설의 문체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 순, 「김유정 소설의 구성원리와 그 유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박현도, 「김유정 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유인순, 「김유정 소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김미현, 「김유정 소설의 카니발적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박정자, 「소설 감상력 신장을 위한 학습 지도 방법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노태열, 「학습자 중심의 소설 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남철,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현실과 욕망의 양상」, 『한국학논집』 16, 1998
김근태, 「김유정 소설의 서술방식과 그 변모과정」, 『숭실어문』, 1994
김형민, 「김유정 소설의 서술 상황론적 연구-바보형 인물을 대상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국외 논저, 번역서>

린다 허천(김상구, 윤여복 공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3
E.M.Forster, 『*Aspects of novel*』, Penguin Books, 1972
D.C.Muecke(문상득 역), 『*Irony*』,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C.E.Black(진덕규 역),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진영사, 1976
Anthony Giddens(이윤희, 이현희 옮김), 『*The Conseguences of dernity*』, 민영사, 1990

부록

「만무방」 발표 보고서

-김유정 문학 탐방-

2학년 7반 2조

20713 도미화 20714 모선미 20715 박소윤

20716 박유라 20717 배경혜 20718 손정화

(자정 알림 신호-트랙 3)

* 발표조 전원 나와서 인사를 한다.

◇ 진행자(도미화) :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학탐방' 사회를 맡은 도미화입니다. 오늘은 작가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시죠.(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내용을 빔 프로젝트 스크린에 띄운다.)

(주요 내용 정리-트랙 4)

1. '만무방'의 의미와 제목을 '만무방'이라 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 만 : 무방 [명사] outrageous people 예의와 염치없이 막되어 먹은 사람

▲ outrageous (1) 포학한. 잔인무도한
(2) 무법의. 부당한. 괘씸한. 지나친. 모욕적인
(3) 엉뚱한. 괴이한. 엄청난

▲ '만무방'이란 원래 '예의와 염치없이 막되먹은 사람'이란 의미인데, 이 작품에서는 응칠이의 부랑(浮浪)하는 삶을 빗대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부채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박과 절도를 일삼는 응칠이나, 모범적 농민이었지만 자기 논의 벼를 훔치고 마는 응오 모두 이 시대의 '만무방'인 것이다. 이는 1930년대 수탈 당하던 농촌 사회의 우리 농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작가 김유정에 대해 조사한 바를 발표해 보자.

▲ 김유정(金裕貞, 1908~1937) 강원도 출생의 소설가.

1929년 휘문보고를 졸업하고 연희 전문 문과 중퇴. 1932년 고향인 실레 마을에 금병의숙을 열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1935년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조선중앙일보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이후 단 몇 년 사이에 「금 따는 콩밭」, 「총각과 맹꽁이」, 「생의 반려」 등 30여 편의 주옥같은 단편 소설을 발표.

심한 폐결핵으로 요절, 춘천 근처에 그를 기념하는 문인비가 세워져 있다.

(국어국문학사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편, 신구문학사, 1975, 160-161쪽)

3. 김유정의 문학 세계

▲

(1) 김유정의 작품은 희화와 골계가 특징이다. 인물의 우직함과 엉뚱함, 결말에서의 의외의 행동, 서술자의 특수한 역할과 아이러니, 속어 등 언어에 있어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농촌의 자연스러운 생활에 대한 애정과 착취당하는 농촌의 현실을 소설에 담고 있음.

(2) 이것이 김유정의 문학 세계

① 원시적 생명력(있는 그대로의 삶)

② 해학과 아이러니

③ 활력의 언어 표현

4. 등장 인물을 소개해 보자.

▲

(1) 응칠 : 평범하게 살던 농민이었으나, 빚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만무방으로 전락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며 닥치는 대로 생활하는 인물

(2) 응오 : 진실하고 모범적인 농민이나, 자신이 가꾼 벼를 자신이 도둑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함

(3) 성팔, 기호, 용구, 머슴, 상투쟁이 :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농촌을 떠나려는 소작농

5. 작품에 나타난 반어적 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

(1) 응칠과 응오 형제가 궁핍한 삶 가운데 상반된 길을 걸어온 이야기

(2) 전과 4범의 건달인 형 응칠은 절도에도 능한 노름꾼이며 사회적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 만무방이다. 이와는 달리, 동생 응오는 모범적인 농군임에도 벼를 수확해 봤자 남는 것은 빚뿐이라는 절망감으로 벼 수확을 포기한다. 응오네 논의 벼가 도둑 맞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의외로 동생인 응오였다는 아이러니. 일 년 농사를 짓고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 땀뿐이라는 인식은 당시의 소작농들의 상황을 잘 파악함

(3) 「만무방」에서는 그 특유의 해학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착취 체제에 내재하는 모순을 겨냥하고 있다. 형인 응칠과 아우인 응오는 서로의 성격적인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취득, 분배 양식에 내재하는 모순에 대립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계급투쟁적 해결의 경직성을 드러내지 않고 '내 걸 훔쳐야 할 운명'의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현실의 피폐함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반어적 기법)**

(4) 작품에 드러난 토착적 유머는 고전 소설에서도 흔히 보이는 특성으로, 절망적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민중 특유의 건강성을 반영하고 있다.

(5) 김유정 특유의 해학성을 가능한 배제, 착취 체제에 내재하는 모순을 겨냥한 작품. 도지, 장리, 세금, 부채 등의 억압 때문에 생산과 수확을 거부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도박판에 뛰어드는 농촌청년들의 사행(射倖)적 행태를 제시. 인물들의 현실 개선의 의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반사회적인 수단인 도박, 절도 등에 의해 현실의 극복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좌절됨.

(6)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과 응칠 형제의 전락. '내 걸 내가 훔치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통해 당시 농촌의 피폐상을 선명하게 드러냄. 전락의 과정은 인물의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에 기인. 당시 농민들의 가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노력과 성실성이 아니라 도박과 같은 요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메시지를 담음. **(반어적 기법)**

6.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현실 인식에 대해 알아보자.

▲

(1) 김유정은 1930년대 현실의 구조를 인식하고 왜곡된 사회 현실의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

(2) 응칠의 행위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왜곡된 사회에 냉소적인 표현임

(3) 결국 「만무방」은 사회의 윤리에 위배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뒤틀린 사회가 빚어낸 인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반어적, 냉소적인 말

7.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

▲

「동백꽃」과 「봄·봄」은 청춘 남녀의 목가적인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데 반해, 「만무방」은 식민지하 농촌 현실의 피폐상을 고발하고 있다. 작가는 1930년대 식민지 농촌 현실을 반어적으로 파악했으며, 그것은 김유정에게 있어 왜곡된 사회 현실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유정 소설에서 주로 드러나는 현상은 농촌의 궁핍화 현상이다. 농촌의 궁핍은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급기야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농촌을 떠나 도회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8. 핵심 정리

▲

(1) 종류 : 단편 소설, 농촌 소설
(2) 배경 : 1930년대 강원도 산골
(3) 성격 : 사실적, 향토적, 고발적, 반어적
(4) 시점 :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5) 특징 : 반전의 기법
(6) 주제 :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상황의 가혹함과 피해

9. 작품의 주요 장면을 연극 형태로 재현해 보고, 구성 단계를 정리해 보자.

▲ 주요 장면을 연극을 통해 재현해 본다.

◇ 진행 및 해설(도미화) : 그럼 이번에는 작품의 주요 장면을 하나하나 재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2)

◎ 장면1(응칠-모선미)

· 해설 : 오늘도 산 속에서 버섯을 먹으며 어슬렁거리는 응칠씨.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버섯을 주워담고 있군요. 산이 완전히 자기 것인 양 휘젓고 다닙니다.

"에잇, 망할 놈의 세상! 나가 죽어라."

앗, 응칠씨, 이제 마구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면서도 산 속을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앗, 저기 나오는 것이 뭔가요? 네, 닭입니다. 임자 없는 닭 한 마리를 발견하였군요. 응칠씨, 닭을 쫓아가기 시작하네요. 앗,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생닭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

"에유, 횡재했구먼. 하지만 닭은 역시 양념을 해 먹는 게 최고야."

응칠씨, 닭을 다 먹고 슬그머니 산을 내려가는군요.

(그대로 정지)

· 리포터(배경혜) : 이 장면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팔자 응칠씨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정말 지리지도 할 일이 없군요.(응칠이를 위 아래로 훑어본다.) 여기서, 잠깐 그의 과거를 살펴볼까요?

◎ 장면2(트랙-10, 응칠-모선미. 아내-박소윤)

· 해설 : 앗,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젊었을 때의 응칠씨로군요. 아, 그 옆은 아내인가요? 둘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 아내 : "저~기, 한 푼만 주세요."

· 동네 사람들(모두) : "시끄러! 거지새끼들아, 저리 가!"

· 해설 :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질 않나 봅니다. 빚 때문에 집도 버리고 도망을 친 두 부부. 지금은 동굴 속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군요. 침묵을 깨고 응칠이의 아내가 말을 꺼냅니다.

· 아내 : "여보, 우리 이제 따로 갈 길을 갑시다. 혼자서 한 입 벌어먹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 해설 : 우리의 응칠씨,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군요.
· 응칠 : "그래, 내가 못나서…, 미안하오, 부디 잘 살구려."
(여기서 멈춤)
· 리포터 : 우리는 여기서 돈이 없어서 가난의 극한까지 간 한 부부의 비극적 결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꾀죄죄한 모습들을.
여기서 잠시 그의 동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 장면3(트랙1, 응오-손정화, 악덕 지주-박유라, 응오 아내-배경혜)
· 해설 : 네, 저 사람이 바로 방금 전 꾀죄죄한 응칠씨의 동생 응오씹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군요. 아, 얼굴에 땀 좀 보십시오.
앗, 저기서 어슬렁 걸어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재수 없게도 생겼군요. 응오씨의 놀라는 모습.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 지주 : "왜 곡식을 제때 안 내는 거야. 이래서야 되겠어? 어째서 지금 이런 일이…."
· 해설 : 비굴하게 나오는 우리의 응오씨.
· 응오 :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추수가 다 안 끝났다니까요.
· 지주 : 또, 내가 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겠나?
· 응오 :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까진 낼만큼 낼 게요.
· 지주 : 내일부터 잘 낼 거면 들어가.
· 해설 : 이런, 정말 악독한 놈이군요. 한숨쉬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응오씨.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병든 아내. 방으로 들어가도 힘든 듯 누워만 있는 응오씨의 아내. 응오씨에게 할 말이 있는지 손짓으로 그를 부르는군요. 일부러 하늘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면서 눈빛을 피하는 응오씨. 계속 손짓을 하자 슬쩍 쳐다봐 주는군요.
· 응오 : 니 또 쌀라고?
· 해설 : 저런, 부인에게 하는 말이 저게 뭡니까? 힘없이 계속 손짓으로 남편을 애타게 부르는 응오씨의 부인. 응오씨는 한숨을 쉬고 아내를 업어 뒷간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정지)

· 리포터 : 소갈머리 없는 지주와 가난한 농민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내와 응오씨의 얼굴…. 얼굴에서부터 가난이 철철 흘러 넘치네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볼까요?

◎ 장면4(트랙-2, 응오-손정화, 응칠-모선미)
· 해설 : 밤입니다. 응칠씨는 착하디 착한 동생의 벼를 훔치는 도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도둑을 잡아주려는 생각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지겨운 지 하품을 하는 응칠씨. 그 때 저쪽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다가오는군요. 정의감으로 넘치는 응칠씨, 뛰어나갑니다.
· 응칠 : "니놈이었구나!"
· 해설 : 다짜고짜 도둑놈을 마구 팹니다.
(잠깐 멈춤)

· 응오 : "아야야야~"
· 응칠 : "니가 지금 누구 벼를 훔치는~ 어~허걱"
· 응오 : "재수 없다! 동생도 못 알아보나?"
· 리포터 :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응오는 재수 없는 지주의 계속된 착취에 지쳐 자기의 곡식을 자기가 훔쳐서 챙겨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마구 팬 응칠씨.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 응오 : "내 곡식 내가 먹지도 못해?"
· 응칠 : "명색이 성이라면서? 으이고 이놈아!"
· 해설 : 너무 맞아서 울고 있는 응오씨. 그런 응오씨를 부축해서 내려가는 응칠씨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장면 멈춤)

▲ 구성 단계 정리

(1) 발단 : 응칠이는 한가롭게 송이 파적을 하며, 송이로 요기를 하고 닭을 잡아먹음
(2) 전개 : 응오네 벼가 도둑 맞은 사실을 듣고 응오의 집에 들렀다가 살벌해진 현실에 개탄함

(3) 위기 : 그믐밤에 산꼭대기 바위굴에서 노름을 하고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함
(4) 절정 : 도둑을 잡고 보니 동생임을 알고 어이가 없어 우두망찰함
(5) 결말 : 황소를 훔칠 것을 거절하는 동생을 몽둥이질하여 등에 업고 산에서 내려옴

▲ 작가와의 대담 시간(김유정 사진을 스크린에 띄운다.)

◇ 진행자 : 자, 잘 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작가 김유정씨를 모시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씨를 모시겠습니다.
(트랙-8, 진행자-도미화, 김유정-박유라)

· 김유정 : 네, 안녕하신지요. 주목받고 있는 작가 김유정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한 작품 「만무방」 잘 읽었습니다. 창작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유정 : 네, 제가 강원도 실레 마을에서 자란 시골 출신이긴 하나 역시 농촌의 현실을 직접 다루려다 보니 사실적인 묘사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제 문학은 어둡고 삭막한 농촌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생활 양식을 냉철하고 이지적인 비판이나 비극적인 진지성보다는 연민의 아픔을 수반한 웃음을 통해 희화적, 해학적으로 그려냄을 그 본질적 축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만무방」에서는 그 특유의 해학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착취 체재에 내재하는 모순을 겨냥했습니다.

· 진행자 :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유정 : 「만무방」은 주인공 응칠이를 중심으로 농촌 사회의 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 폭력성을 세밀하게 그려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절박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슬프다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에 나타나 있듯이 풍년이 들어도 농사지은 보람이 전혀 없다는 일제 강점하의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간명하면서도 처절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죠.
한편, 응칠이의 삶은 한 마디로 '만무방'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을 식민지 유랑민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패륜아라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은 건실한 삶의 자세가 통하지 않는 시대의 인간상입니다.
· 진행자 : 아, 그렇군요. 오늘 바쁜 와중에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품의 일 분 논평(화면을 스크린에 띄운다.)

◇ 진행자 :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작품의 일 분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평론가 손정화님을 모십니다.
(트랙-6)

· 평론가 : 네, 안녕하세요. 문학 평론가 손정화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손정화씨가 지금부터 일 분 안에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평론가 : 네,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에, 그러니까, 「만무방」은 응칠과 응오 형제가 궁핍한 삶 가운데 상반된 삶의 길을 걷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아무리 뼈가 휘게 일을 해도 일 년 농사를 지어 가을걷이를 하여 타작 마당에서 벼를 털어, 갚을 것 갚고, 제할 것 다 제하고 나면 툴툴 털어 빈 지게만 덜렁 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던 당대 농민의 설움을 이 작품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편 김유정은 이 작품에서 농촌 사회의 제도적 모순에 기인한 농민 생활의 비참한 모습을 주인공 응칠의 시각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짚이 석 단까지 낱낱이 벽 위에 적고 빚쟁이들 이름을 적은 후, 싸우지 말고 잘들 나누어 가지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 야밤에 가솔을 이끌고 개구멍으로 빠져 도망쳐 나온 응칠이는 당대의 떠돌이 농민의 전형적인 인물로 그가 마침내 아내와 다 쓰러져 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마지막 하룻밤을 떨고 나서 아내와 갈라지고 팔자를 고친다는 역설적 장면은 한 편의 희화이면서 눈물겹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진실한 농군인 응오의 지난 해 가을걷이에 대한 언급에서는 당시 한국 농촌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 분 동안만 읽고 끊기)

· 진행자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 분이 넘었으므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랙-12)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박유라양이 준비한 글 한 편을 소개합니다. 요즘 시대는 「만무방」의 등장 인물들처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은 없을까요?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현실이 과연 살만한 세상인가, 그렇지 못한 세상인가 진지하게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의 발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작품의 감상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1) 응칠과 응오의 아내가 되어 신세를 한탄하는 말로 나타내보자.

▲

① 응칠의 아내 :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한지. 빚만 없으면 어떻게든 살 것 같더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지금도 그 때나 마찬가지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하고 헤어지지나 말 것을. 여자 혼자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

② 응오의 아내 : "아무리 애써 농사지으며 뭐 하나.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와중에 나까지 아파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2) 2003년 절대 빈곤층 증가 현상에 대한 자료 조사와 느낀 점을 발표해 보자.

▲ 우리는 흔히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도 게으름, 능력 부족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과 사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빈곤의 고리를 깨지 못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도시 가구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층'이라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적고, 능력이 모자라며,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힘들어지고 그만큼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유정의 「만무방」에는 동전 몇 푼과 양식 얼마간을 빼앗은 뒤 흔적을 없애기 위해 낫으로 그 얼굴을 벗기고 조기대강이 이기듯 해 놓고 사라진 끔찍한 강도 사건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덕과 규범을 일탈하는 행동으로 사회가 해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노동자, 농민 문제, 절대 빈곤층의 삶의 모습과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면서 하루바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개선되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절대 빈곤으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을 구가하는 사회가 되길 빌어봅니다.

(트랙-3)

□ 형성 평가 문제지(만무방 Q & A)

(1) 응칠, 응오 형제의 행위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작가의 현실 인식은 어떤 것인가?

① 모범적인 농민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반어적으로 나타냄
② 형제간의 갈등을 통해 바람직한 동기간의 우애가 필요한 사회임을 보여줌
③ 형제의 '만무방'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현실 개탄
④ 모범적인 농민이 도둑이 되는 일제 강점기 현실을 모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넌지시 고발함
⑤ 일제 강점기 현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농민의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함

(2) 응오가 자기가 농사지은 벼를 도둑질하게 된 근본 원인은?

① 농민을 착취하는 일제 강점기 현실　② 형제간의 갈등
③ 농사에 대한 의욕 상실　④ 아내의 병
⑤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형을 떠나 보내기 위한 계책

(3) 응오의 처지에서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속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노루를 피하니 범이 나온다.
② 아무리 쫓겨도 신발 벗고 가랴
③ 길 떠나는 이가 보리 방아 찧어 주고 가랴
④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4) 이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주인공의 행동을 당시 농촌의 경제적 파탄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② 김유정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의식을 찾아본다.
③ 주인공의 떠돌이 신세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④ 작품을 읽으면서 제목의 상징성을 궁리한다.
⑤ 문체면에서 김유정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찾는다.